

碩 士 學 位 論 文

風水地理 立場에서 본 고인돌
立地條件에 관한 研究

2007年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 專攻

李 承 燾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朴 時 翼

風水地理 立場에서 본 고인돌

立地條件에 관한 研究

- 강화도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Location of Dolmen from
the View point of Feng Shui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 專攻

李 承 燾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朴 時 翼

風水地理 立場에서 본 고인돌
立地條件에 관한 研究
- 강화도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Location of Dolmen from
the View point of Feng Shui

위 論文을 不動産學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産大學院

風水地理 專攻

李 承 燾

李承煥의 不動産學 碩士學位 論文을 인정함

2006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풍수지리 이론의 배경	4
제1절 풍수지리의 발생	4
제2절 풍수지리 이론의 구조	7
1. 자연적 기운 분석	7
2. 인위적 기운 분석	9
제3절 풍수지리의 이론적 배경	10
1. 풍수지리 이론의 바탕	10
2. 인간의 본질	12
제3장 풍수지리의 명당	13
제1절 산과 명당	13
1. 산의 기운	13
2. 산의 앞과 뒤	14
3. 산의 종류	16
제2절 용과 명당	19
1. 용의 출맥과 형태	19
2. 용의 앞과 뒤	22
3. 내룡의 영향	22
4. 용의 변화	23
5. 용의 종류와 형상	26
6. 에너지의 이동	28
제3절 혈과 명당	29
1. 주룡의 기운과 영향	30

2. 혈의 발생	31
3. 혈의 구조와 형태	32
제4절 사신사와 명당	34
1. 사신사의 기능	34
2. 현무의 역할	36
3. 청룡과 백호의 역할	36
4. 주작의 역할	38
제5절 물과 명당	39
1. 물의 역할	39
2. 득수와 수구	40
3. 수맥	42
제6절 바람과 명당	44
 제4장 고인들의 역사	46
제1절 고인들의 고고학적 배경	46
1. 고인들의 명칭	46
2. 고인들의 기원	47
3. 고인들의 분포	49
4. 고인들의 축조연대	52
5. 고조선과 고인돌	55
제2절 고인돌 축조과정	57
1. 암석의 종류	57
2. 암석의 채집	57
3. 석재의 운반	58
4. 고인돌의 축조	60
5. 고인들의 종교의례적 성격	60
제3절 동북아 고인들의 입지조건	61
1. 요녕지방	62
2. 한반도 북부지역	63

3. 한반도 중서부지역	64
4. 한반도 남부지역	64
제5장 강화도 고인들의 입지조건	68
제1절 지리적 분포와 입지조건	68
1. 강화고인들의 지리적 분포	69
2. 강화고인들의 입지조건	71
제2절 개별적인 현장조사 , 분석	74
1. 강화지석묘	75
2. 부근리 점골 고인돌	78
3. 하점면 삼거리 샘말부락 고인돌	80
4. 양사면 교산리 고인돌	83
5. 내가면 오상리 고인돌군	85
6. 내가면 고천리 고인돌	88
7. 현장조사결과 종합	90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99

그림목차

(그림 2-1) 우리나라의 산줄기	6
(그림 3-1) 산의 앞면과 뒷면	15
(그림 3-2) 조종산	19
(그림 3-3) 용의 출맥 형태	20
(그림 3-4) 용의 종류	21
(그림 3-5) 용의 변화 형태	26
(그림 3-6) 용세 12격	28
(그림 3-7) 지맥의 단면도	29
(그림 3-8) 용의 5단계 변화 과정	32
(그림 3-9) 혈의 4가지 종류	33
(그림 3-10) 사신사	37
(그림 4-1) 세계의 고인돌 분포도	49
(그림 4-2) 동아시아의 고인돌 분포도	50
(그림 4-3) 요동지방 고인돌 분포도	63
(그림 5-1) 강화도 고인들의 분포	70
(그림 5-2) 강화지석묘(사적 제 137호)	75
(그림 5-3) 부근리 15번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4호)	78
(그림 5-4)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2호)	79
(그림 5-5) 삼거리 샘말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5호)	80
(그림 5-6) 삼거리 샘말 능선상의 채석장	82
(그림 5-7) 삼거리 샘말 능선상의 고인돌	83
(그림 5-8) 교산리 산상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8호)	84
(그림 5-9) 오상리 56번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16호)	86
(그림 5-10) 오상리 57~65번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7호)	86

(그림 5-11) 고천리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6호)	88
(그림 5-12) 고천리 고인돌 채석장	90

표 목차

(표 4-1) 평양일대 고인돌 무덤 편년표	55
(표 4-2) 경기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고인돌 위치 비교	66
(표 5-1) 강화도 고인돌 분포현황	71
(표 5-2) 강화도 고인돌의 형식과 입지조건	72
(표 5-3) 능선과 고인돌의 방향	73
(표 5-4) 풍수지리 입장에서 본 고인돌 입지 분석	9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고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경험한 대자연의 이치를 최대한 이용하여 더 좋은 조건을 지닌 터를 찾아서 주거지를 삼았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의 사후 거주지를 선택함에도 오랜 체험을 바탕으로 좋은 곳에 안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따르게 되면서 서서히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어 지세를 관찰하고 선악(善惡)을 구분하여 풍수지리 이론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래 전부터 산을 종교로 신봉하는 산악숭배 사상이 다른 민족보다 유난히 발달해 왔다. 따라서 주거지나 조상의 묘 자리를 선정하는 방법이 산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왔다. 우리 조상들의 오래된 묘 자리로 고인돌을 꼽을 수 있다. 고인돌의 입지조건을 분석하면 조상들의 자연관과 사상을 일정부분이라도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고인돌은 세계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거석문화의 한 무덤형식이다. 인류가 거석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남기게 된 것은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재료로서 거석을 이용하였다는 점 외에도 거석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여 있다는 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선돌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요소이며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고인돌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세워졌다고 본다. 이는 풍수지리와 관련이 없는 고고학자나 지리학자들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고인돌이 축조된 지 수 천년이 흘렀어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원류는 고인돌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정 하에서 본 논문은 고인돌의 입지조건을 풍수지리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먼저 풍수지리 이론에서 명당을 어떻게 찾는가를 서술하고, 다른 주제는 고인돌의 성격과 입지조건을 파악하여 풍수지리에서 다루는 명당의 개념과 대비하고자 하였다.

먼저 풍수지리 이론의 배경을 풍수지리의 발생, 풍수지리 이론의 구조, 풍수지리 이론의 사상적 배경으로 나누어 찾아보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을 서술하였다. 즉, 산과 명당과의 관계, 용·혈·사신사 및 물과 바람과 명당의 관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고인돌의 역사에서는 고인돌의 고고학적 배경과 형식을 분류하고 고인돌의 축조과정, 동북아 고인돌의 입지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고학적 배경에서는 고인돌의 명칭, 기원, 분포, 축조연대 및 고조선 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또한 고인돌의 축조 과정과 동북아 고인돌의 입지조건을 요녕지방·한반도 북부지역·중서부·남부지역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강화도는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한강의 관문으로 서해바다에 자리잡고 있는 섬들 가운데 5번째로 큰 섬으로,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서북부 및 요동반도 일대와 근접하여 문화접촉이 용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특히, 한국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의 하나인 고인돌이 강화도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현상은 한반도 전체의 고인돌문화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강화도 고인돌이 어떠한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는가와 어떠한 입지에 축조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풍수지리 이론과 접목시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고인돌의 심층 분석을 통해 산(용)의 흐름과 주변 환경(사신사) 분석, 혈장의 토질과 물의 흐름 및 수맥, 바람 등을 살펴 고인돌의 입지조건이 풍수지리 이론상 명당과 가까운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풍수지리 이론에 입각한 고인들의 입지조건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하여 풍수지리 이론과 고인들의 입지조건의 연관성을 찾고자 한다.

제2장 風水地理 理論의 背景

제 1 절 風水地理의 發生

인류가 나타난 아주 먼 옛날부터 바람과 물이 가장 중요한 주거지의 입지 조건이었다.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분다든가, 홍수나 한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기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야 한다.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바람과 물의 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고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경험한 대자연의 이치를 최대한 이용하여 더 좋은 조건을 지닌 터를 찾아서 주거지를 삼았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의 사후 거주지를 선택함에도 오랜 체험을 바탕으로 좋은 곳에 안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지세를 관찰하는 작업이 곧 풍수를 보는 작업으로 인식되었고, 풍수라는 말은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풍수지리의 유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장용득은 풍수지리가 중국에서 유래한 것 같다는 다음의 견해를 밝혔다.

사실 풍수사상이 하루아침에 이룩된 것은 아니다. 아마 중국 황하 유역에서 바람과 물을 가려 삶에 알맞은 곳을 택한 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확고한 관념으로 발전되고 점차 현실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원시신앙이나 음양사상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풍수사상으로 발전하여 진 것 같으나 정확함은 알 수 없고 다만 우리나라 유적이운데 半月城 滿月城 같은 이름은 모두 풍수사상에서 붙여진 것이라 믿어진다.¹⁾

박시익은 풍수지리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으

1) 장용득(張龍得)(1980). 『명당론(明堂論)』, 양정사,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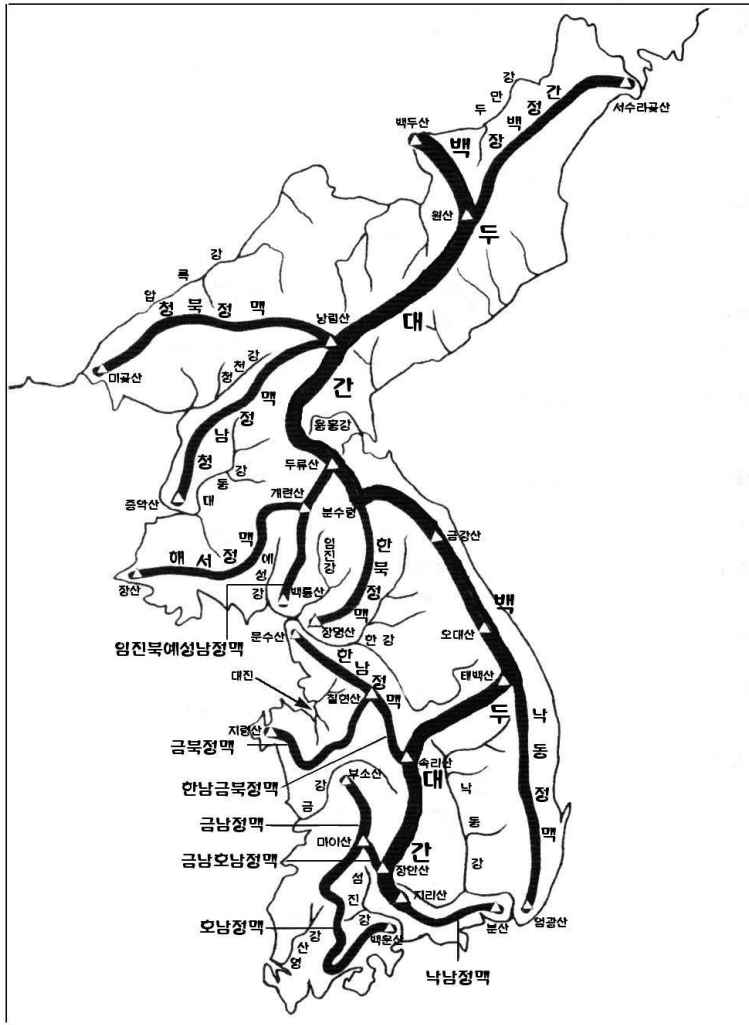
로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았던 옛 선인들에 의해 생겨나서 중국을 비롯한 동양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국토는 산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변화가 다양하며, 우리 선조들의 산신숭배 사상이 풍수지리를 발생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단군 시대에는 이미 주역과 음양오행설의 이론이 일반화되었으며, 지세에서 발생하는 산의 이론은 이러한 철학과 더불어 풍수지리 이론을 자연스럽게 정립할 수 있었다. 또한 고인돌의 위치는 대부분 산의 정상으로부터 평지로 연결되는 능선 위에 있어 풍수지리 이론에 입각해 고인돌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산은 힘을 갖고 있는 두려운 대상으로서 숭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형적으로 신령스러운 산이 많아 오래 전부터 산을 종교로 신봉하는 산악숭배 사상이 다른 민족보다 유난히 발달해 왔다. 단군이 최초로 국가를 이룩한 곳도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였으며, 단군이 죽어 산신이 된 곳도 바로 그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신은 크게 보면 국가를, 작게 보면 하나의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숭상되어 왔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이 땅을 산과 강이 정연한 원칙에 따라 어우러져 있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았다. 전통적 지리 인식체계에서는 산의 흐름을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하여, 기둥줄기와 큰 줄기, 그리고 작은 줄기와 곁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았고, 줄기와 줄기 사이, 가지와 가지 사이에 강이 생성되어 흐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국토’를 달리 표현할 때에는 산천(山川), 산수(山水), 산하(山河), 강산(江山) 등과 같이 ‘산’과 ‘물’을 함께 일컬어 ‘나라 땅’을 나타내었다.

2) 박시익(朴時翼)(1999).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p.18~23



(그림 2-1) 우리나라의 산줄기³⁾

이렇게 산을 중시하는 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시 되었고 여러 이론과 결합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 현진상(2002) 『우리땅 산줄기 백두대간』 . p.9

제 2 절 風水地理 理論의 構造

풍수지리는 자연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터를 찾는 학문이다. 아울러 돌아가신 조상들이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효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풍수지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돌아가신 조상의 시신(屍身)을 좋은 자리에 안장(安葬)하여 조상의 유골과 영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조상에 대한 효도임과 동시에 조상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 발생하는 양호한 환원에너지를 후손들이 받아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복(發福)이라고 한다. 음택(陰宅)은 이러한 목적에서 죽은 사람의 주택, 곧 산소자리에 대한 풍수지리이론이 된다.

둘째는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좋은 터를 잡아 건강에 직결되는 양호한 환경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다. 개개인이 좋은 터를 잡고 생활해야 가족을 포함해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살아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도시 등에 대한 풍수지리 이론은 양택(陽宅)이라고 한다.

풍수지리 이론은 음택이나 양택을 선정할 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공간의 기운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기운을 크게 자연적 기운과 인위적 기운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적 기운이란 산이나 강, 방위 등 자연 지세에 따라 생기는 기운을 말하고 인위적 기운이란 건축물과 같이 사람이 만든 공간에서 생기는 기운을 말한다.

1. 자연적 기운 분석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터를 찾는 것은 바람과 물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풍수지리에서 살기 좋은 곳이란 자연의 생기(生氣)가 모이는 곳이며 생기가 모인 곳을 혈이라고 한다. 바람은 공기의 이동을 말하지만 생기를 운반하기도 하고, 발산시킬 수도 있으며 퇴적과 침식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물은 인체의 구성에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원소이면서, 생기를 수렴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기를 운반하고 퇴적하는 작용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선 침식하는 작용도 한다.

자연적 환경에서 바람과 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산세와 강물 등의 조건을 살피게 된다. 산과 물의 지세(地勢)를 분석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자리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풍수의 핵심이다.

산은 봉우리와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풍수에서는 산봉우리와 능선을 통틀어서 용(龍)이라고 말한다. 산과 산이 맥으로 이어져 변화하는 모습이 전설속의 용이 움직이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산의 모습들을 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산들을 청룡(靑龍), 백호(白虎),朱雀(朱雀), 현무(玄武)라고 하는 데 이들을 합하여 사신사(四神砂) 또는 사(砂)라고 한다. 용과 사신사 그리고 개천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을 살펴보면 이중에서 중심이 되는 혈(穴)을 찾게 된다. 혈이란 한 지역에서 생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땅을 말한다.

풍수이론은 대체로 용·혈·사·수에 따라 4대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간룡법(看龍法) · 장풍법(藏風法) · 득수법(得水法) · 정혈법(定穴法) · 좌향론(坐向論) · 형국론(形局論) 등이 있다.

간룡법(看龍法)은 산을 생명체로 인식하고 용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 산이 생기가 흐르는 산(生龍)인지 죽은 산(死龍)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우리 땅 정기의 원천인 백두산에서 혈장과 가까운 주산(主山)까지 이르는 산맥이 힘있게 이어지고 산이 살아 있는 용처럼 산맥이 끊어지지 않고 생기 넘치게 뻗어 있으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장풍법(藏風法)은 주산(主山)을 중심으로 명당 주변 산세를 살피는 방법으로 주변 산세가 포근하게 사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무정하게 돌아 앉았거나 외면하는 산세는 좋지 않다. 장풍법에서는 좌청룡(左靑龍) · 우백호(右白虎) · 전朱雀(前朱雀) · 후현무(後玄武)의 사신사(四神砂)를 살피는 것이다. 사신사로 인해 만들어진 국세의 크기에 따라 대취국(大聚局), 중취국(中聚局), 소취국(小聚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취국은 대도시가 형성될 수 있고 중취국은 중소도시가 형성되며 소취국은 시골 마을이나 음택지(陰宅地)가 된다. 따라서 풍수지리에서 음택(陰宅)이나 양택(陽宅)은 명당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길지(吉地)를 찾는 원리는 같다.

정혈법(定穴法)은 간룡법(看龍法)과 장풍법(藏風法)을 통해 명당의 범위가 대략 정해지면 명당 중에서도 어느 곳이 생기가 모이는 혈(穴)인가를 정하는 방법이다. 혈은 명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읍이나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위치하여야 하며 음택(陰宅)에서는 시신이 묻히는 곳이 된다.

득수법(得水法)은 물의 흐름을 살피는 것으로 직선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보다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구불하여 유장하게 흐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본다. 물의 흐름은 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산과 물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산수동거(山水同去) 형태가 아니라 물의 흐름이 혈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산이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며 이를 거수(去水)라고 한다.

좌향론(坐向論)은 방위론이라고도 하는데 지세의 기운이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형국론(形局論)은 땅을 짐승이나 식물, 또는 사람 모양으로 규정하고 비유된 동식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통해 생기가 모이는 혈을 찾는 방법이다.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 등은 형국론에 의해 붙여진 이름들이다. 다만 지세의 구성요소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형국을 말하는 것이 땅의 기운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형국론이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풍수지리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면,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은 형국론보다 경험적이고 기술적 성격이 강한 이론 체계이다. 자연적인 기운을 제대로 파악하여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함께 이용된다.

2. 인위적 기운 분석

인위적 공간인 건축물 안에서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고

있다. 건축물 안에 있는 동안 사람은 지세에서 발생하는 기운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운을 동시에 받게 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건물의 규모나 형태, 배치, 방위, 마당, 도로, 주변 건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재료와 색상, 실내 공간의 형태와 방위, 가구와 장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건축물이 자리한 지세가 명당이어도 건물의 형태나 방위 등이 좋지 못하면 완전한 명당을 이룰 수 없다. 명당 지세 위에 건물의 형태나 방위 등도 생기가 모이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터를 만드는 방법이다.

제 3 절 風水地理의 理論的 背景

1. 風水地理 理論의 바탕

풍수지리는 만물의 근원을 기(氣)라고 본다. 기는 세상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기초로 모든 살아 있는 것은 기로 만들어지며 기로 삶을 영위하며 기가 다할 때 죽음을 맞는다. 사람도 기의 모임이므로 기가 모이면 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人之生 氣之聚也, 聚則僞生 散則僞死).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 기듯이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다.⁴⁾

사람의 육체는 음기와 양기로 구성되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는 인식은 고대 천문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잉태되는 순간 하늘의 기, 곧 천기를 받게 된다. 그 가운데 해와 달과 수성·화성·목성·금성·토성을 비롯한 무수한 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늘의 기운으로 잉태된 사람은 조상과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땅의 기운을 살펴 살자는 생각에서 체계적인 사상과 이론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풍수지리다.

『주역』에서는 우주 생명의 원리를 태극이라 하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으며 또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 삼라만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퇴계 이황은 우주 생성의 근원을 기로 보고,

4) 박시익(朴時翼)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p.52 ~ 53

그 기를 태극에서 생겨 난 ‘일원지기(一元之氣)’라 했다. 천지와 삼라만상은 모두 기에 의해 생기고 자라며 죽음에 이른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지기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분해되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의 원천인 기는 사람 몸 안에도 흐르고 땅에도 흐른다. 그 중에서도 생기는 음양과 오행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기로 만물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사람도 음양오행의 생기에 따라 태어나 자라고 늙고 죽어가기 때문에 생기를 받고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처럼 풍수 사상은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의 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발전이나 성장 역시 자연에서 기를 흡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수에서 ‘명당’이란 ‘생기’가 흐르는 땅을 말하는데 집을 짓거나 밋자리를 택할 때 풍수를 따지는 것은 좋은 땅의 기를 받는 것이다. 풍수에서 생기가 흐르는 좋은 땅이란 음과 양이 조화로운 땅이다. 산과 물, 음과 양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곳에서는 좋은 생기가 나오지만, 반대로 어느 한쪽 기운만 큰 곳에서는 나쁜 기운이 나오기 때문이다.

풍수지리는 지기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땅에 인간이 어떻게 잘 어울려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땅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 등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지기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풍수지리 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풍수지리 이론의 3요소로 꼽히는 산·수·방위를 살피는 것도 그것들이 기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에서 산의 형태와 품격을 나누는 데도 이들 각각의 기가 그 주변에 사는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가 그 기준이 된다.

기는 천지간을 유행하고 서로 같은 기끼리 조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풍수에서는 동기감응(同氣感應)이라고 한다. 즉 조상과 자손간에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기를 가지고 있고 파장이 같기 때문에 감응을 일으키는데 조상의 묘지의 길흉에 따라 자손에게 화복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人間의 本質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소우주로 천지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사람은 자연의 기운에 따라 생명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의 형태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은 둥글고, 몸체는 편편한 사각형으로 사람의 얼굴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몸은 땅의 기운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사람은 사계절의 기운을 받아 팔과 다리 네 개가 되었으며 눈과 귀는 해와 달을 상징한다. 오행의 기운은 사람 몸 안에 오장을 만들고, 하루가 1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12경맥을 가진다. 이렇듯 사람의 신체 구조는 모두 천지의 운행에 따른 것이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천지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는데 천과 지를 나눠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활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땅의 능력도 하늘의 힘을 받아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은 부와 같고 지를 모와 같이 믿게 되고 인생에 작용하는 것은 모와 같은 지이며 이와 같이 땅을 행복과 발전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 깊어져서 일종의 지모신앙으로 믿어져 있기도 하다.

사람의 감정은 일곱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를 ‘칠정(七情)’이라 한다. 퇴계는 이기(理氣)에 대한 자신의 학설에서 칠정을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으로 보고, 이 역시 기에 의한 것이라 했다. 이것은 사람 얼굴에 구멍이 일곱 개(두 개의 눈·코·귀, 하나의 입) 있고 태양에도 일곱 가지 색이 있음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요컨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모두 기에 의해서 나고 움직이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정(精)·기(氣)·신(神) 3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정(精)은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바탕을 말하고 기(氣)는 육체 내부에서 순환되는 기운이며 신(神)은 사람의 마음 및 정신능력을 말한다. 인간을 구성하는 정·기·신은 바로 자연을 구성하는 천일(天一)·지일(地一)·태일(太一)의 압축물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체는 영적인 작용인 하늘 기운과 육체적인 구조인 땅 기운,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기운인 신 기운으로 구분된 세 기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제3장 風水地理의 明堂

제1절 산과 명당

1. 산의 기운

풍수지리에서는 지상의 모든 산맥(山脈)과 산(山)을 통틀어 모두 용(龍)이라고 부른다. 우리 조상들은 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변화하는 형태가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산을 용에 비유하였다.

산은 평탄한 땅보다 더욱 강력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세를 분석하고 집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풍수지리에서는 평지보다 3센티미터만 높아도 산으로 해석한다. 평지에서는 3센티미터만 높아도 땅에서 발산되는 힘이 다르게 발생하고, 그 높이에 의해 물이 흐르는 방향이나 바람 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산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의 생동력 중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기운도 있고 해로운 기운도 있다. 모든 식물들이 각기 뿌리내린 토양의 성질에 따라 성장 과정이나 결실 내용이 달라지듯, 좋은 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아름다워진다. 또 나쁜 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생활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명산이 있는 곳에서 큰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산의 기운 때문이다. 산의 크기나 모습이 모두 다르듯 산의 기운도 제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좋은 집터나 사업장을 찾기 위해서는 생기가 많은 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산이 있는 지세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발전할 수 있지만, 흉한 산이 있는 곳에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⁵⁾

2. 산의 앞과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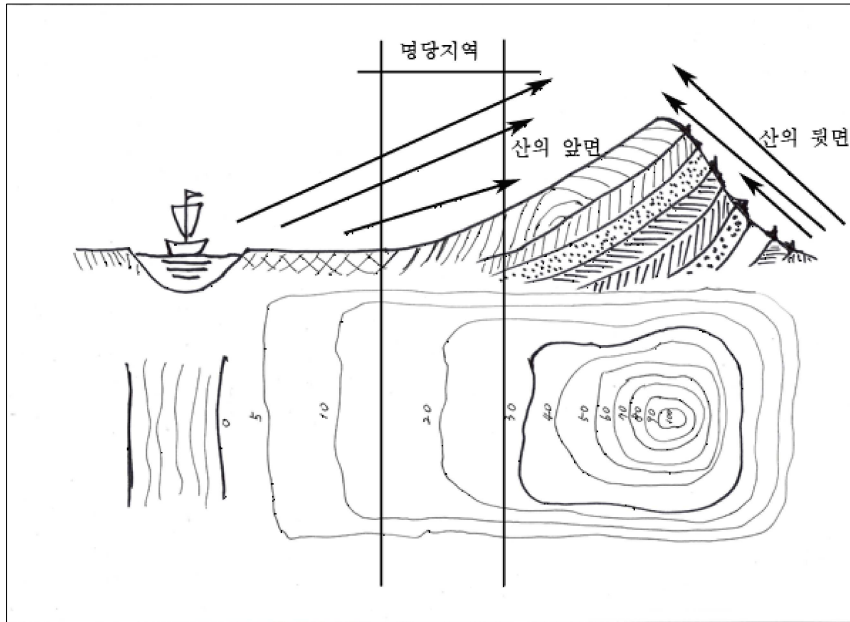
사람은 앞과 뒤가 서로 달라 얼굴이 있는 앞은 색이 밝고 광채가 있으나 머리가 있는 후면은 색이 어둡다. 또 앞에 있는 배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나 등에는 등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서로 다르다. 사람의 신체에서 중요한 부분인 이목구비나 생식기 등은 모두 몸의 앞면에 있다. 나뭇잎도 앞면은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매끈거리고 반짝이지만, 뒷면은 거칠고 빛이 나지 않는다. 산에도 사람과 같이 앞과 뒤가 있고, 그 형태도 같은 이치 속에 있다.

명당은 산의 앞쪽에만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생식기가 신체의 앞에 있고, 꽃과 열매가 잎의 앞에서만 피고 맺는다는 사실과 동일하다. 따라서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하여 산의 앞쪽에서 찾아야 한다. 산의 뒷면에서 명당을 찾는 것이 헛수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산의 형태를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산의 앞쪽은 형태가 평탄하고 안정적이며, 지면에 밝은 기운이 서려 있다. 그러나 산의 뒷면은 굴곡이 심하고 험한 바위가 불규칙하게 나타나 있으며, 지면이 어둡고 험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또 산의 앞면은 들판을 향하고 있으면서 높은 산이나 큰 강을 등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은 대부분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남향을 하고 있는 산이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모든 산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의 형태에 있어서 앞과 뒤는 남향이니 북향이니 하는 방위와는 관계없이, 산맥의 흐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5) 박시익(朴時翼)(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66 ~ 67 참고



(그림 3-1) 산의 앞면과 뒷면

산의 앞면 중에서도 명당은 낮은 곳에 있다. 높은 곳은 바람의 속도가 강하여 저기압을 이루고 낮은 곳은 바람의 속도가 약해서 고기압권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지가 명당인 것은 아니다. 평지는 산의 기운이 약하며 산화된 토질이어서 농사짓기에는 좋지만 단단하지 못하여 집터나 묘터로는 부적합한 곳이 많다. 따라서 산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낮은 지역이 명당지역이 된다.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하게 되면 생기가 있는 땅, 즉 명당을 찾는 일이 훨씬 수월하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농촌 주택들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산의 앞쪽에 위치하여 산을 배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반면, 산의 뒷면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오는 동안 산의 앞쪽에 살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를 이어 온 반면, 산의 뒤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터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한 다음, 산의

앞쪽을 선택해 집을 지어야만 개인과 가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아름다운 산이 집터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지세에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산의 뒷면에 해당되는 곳에 살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해 손해를 입게 된다.

3. 산의 종류

1) 오행산(五行山)

오행산⁶⁾은 산의 기운을 음양오행설에 근원을 두고, 오행으로 구분한 산을 말한다. ‘오행’이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기운, 즉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를 말한다.

오행에서 ‘수’는 물과 같이 수직 하강하는 기운의 성질을 나타내며, ‘화’는 불과 같이 확산하며 폭발하는 기운을 말하고, ‘목’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 ‘금’은 금속과 같이 수축력이 강한 기운, ‘토’는 여러 가지 기운을 모두 포함하여 균형을 이루는 기운을 말한다. 오행산은 오행의 각각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산을 말하며, 목산·수산·토산·금산·화산 등 다섯 가지로 나눈다.

‘목산(木山)’은 산의 형태가 정상부에서 꽃봉오리 모양을 이룬 산을 말하며, 수직 상승하는 기운이 많은 산이다. 목산 중에서도 산의 정상부가 마치 붓의 끝부분같이 뾰족한 산을 문필봉(文筆峰)이라 한다. 목산이 있는 지세에서는 음택이든 양택이든 관계 없이 학문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다. 학덕을 익히게 되면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게 마련이며 출세를 하게 된다. 따라서 목산이 있는 곳에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고급 공무원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6) 장용득(張龍得)(1980). 『명당론(明堂論)』. 양정사. p.146 ~ 148 참고
박시익(朴時翼)(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74 ~ 77 참고

‘화산(火山)’은 산의 정상부가 두 개 이상의 뿔죽한 봉오리를 이루고 있으면서 마치 나무가 불에 탈 때 나타나는 불꽃의 형태를 닮은 산을 말한다. 불은 기운이 폭발하여 확산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화산 역시 기운이 하늘로 높이 폭발하는 기운을 갖고 있다. 서울 남쪽에 있는 관악산이 화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화산이 있는 지세에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조선 시대에 서울을 수도로 정한 이후 이 관악산의 영향으로 큰 화재가 발생하자 경복궁 앞에 물의 상징인 해태 석상을 만들어 그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산의 화기를 억제하기 위해 산 정상에 땅 속에 소금 단지를 묻기도 했는데, 이른바 ‘소금물이산’이 그것이다. 화산이 있는 지세에서는 종교인이나 예술가가 배출된다.

‘토산(土山)’은 산의 정상부가 평탄하게 수평으로 펼쳐진 것을 말하는데, 일(一)자와 유사해서 일자문성(一字文星)이라고도 부른다. 오행에서 토는 균형을 이루는 기운을 말하므로, 수평선은 좌우의 힘이 균등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세에 있어서 토산이 있는 곳에서는 왕이나 왕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土)는 모든 기운을 다 포용하는 가장 중심적인 힘인 왕기(王氣)로 보기 때문이다. 면류관의 형태가 사각형이면서 상부가 평탄하게 되어 있는 것도 ‘토’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산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마치 바가지를 얹어 놓은 듯한 산은 오행 중에서 ‘금산(金山)’이라고 한다. 또 농사를 끝내고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형태와 유사하다 하여 노적봉(露積峰)이라고도 하는데, 금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재물이 많이 모여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 산 형태가 둥글면서 힘차게 보이는 산은 금산 중에서도 ‘투구봉’이라고 하는데, 투구는 군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장비일 뿐만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금산이 안산으로 있는 지세에서는 장군이 배출되기도 한다.

‘수산(水山)’은 산 정상부에 여러 개의 봉우리가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연결

되어 있어 마치 물결이 굽이치는 듯한 형태를 말한다. 두 개 이상의 봉우리가 거의 비슷한 크기를 이루며 연결된 것이 특징이며, 여러 개의 봉우리가 비슷한 형태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연결되었거나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좌우로 길게 벌어져서 마치 병풍을 둘러친 듯한 형태를 이룬 것도 수산이다. 오행산의 대부분은 산 정상부를 정점으로 하여 좌우가 낮게 되어 있어서 산의 중심부에 집중되는 힘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수산은 산의 중심부가 여러 개의 봉우리로 분산되어 있어서 비록 외견상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중심적인 힘은 다른 산에 비해 약하다. 서울의 남산은 두 개의 봉우리로 된 수산인데, 두 개의 봉우리로 된 수산은 봉우리 사이에 연결된 능선이 낮아서 마치 말의 안장과 같은 형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오행산 중 한 형태만 닮은 산은 오행산으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행산으로 구분되지 않는 산의 형태도 많다. 특히 오행의 두 가지 기운이 혼합된 형태의 산은 더욱 구분하기 어려운데, 목산과 화산의 중간 형태 산이 있는가 하면 토산과 수산의 중간 형태 산도 있다. 이런 산은 기운도 혼합되어 있다. 오행 혼합산의 경우 산 정상과 그 아래를 구분해서 상부가 목산이고 아래가 금산이면 목금 혼합산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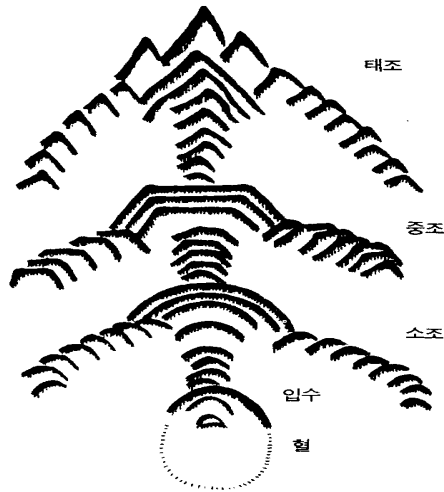
2) 조종산(祖宗山)

사람이 조상을 근원으로 하여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도 그 근원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고 본다. 태조산(太祖山), 중조산(中祖山), 소조산(小祖山)을 합쳐 조종산이라고 한다.

태조산은 혈장에너지의 근원처(根源處)가 되고 중조산, 소조산은 혈장에너지의 중간 집합처인 조정지(調整地) 역할을 한다. 혈장의 근원처가 되는 가장 먼 곳의 특출한 산을 태조산이라 하고, 혈장으로 내려오면서 태조산 다음의 특출한 산을 중조산, 그 다음의 특출한 산을 소조산이라 한다.

이 중에서 소조산(현무: 玄武)은 혈장에 미치는 역량이 가장 큰 데, 소조산이 혈장에 가까울수록 종고 입수로부터 3절 내지 5절 이내에 있어야 하며, 수려(秀麗)하고 혈장을 향해 머리를 드리우고(수두: 垂頭) 있어야 한다.⁷⁾

7) 이익중(李益仲)(2001). 『길한터 흥한터』. 우성출판사. p.136 ~ 138 참조



(그림 3-2) 조종산⁸⁾

제2절 용과 명당

1. 용의 출맥과 형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龍)’이란 산과 능선을 말한다. 산이 크고 작고, 높고 낮으며, 순행을 하다가 역행도 하고, 좌우로 구불구불하며 신출귀몰하고 조화무궁한 기운을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형상과 같이 본 것이다.

맥(脈)이란 용을 몸체로 하여 산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다. 맥은 용의 능선을 따라 흐르고, 용의 강약미추(強弱美醜)로 맥의 강약미추를 판단하고 산 기운의 선악을 판단한다. 용과 맥은 사람의 몸과 그 속에 흐르는 맥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용맥(龍脈)이라고 부른다.

용맥이 조종산인 태조산이나 중조산, 소조산이나 취기된 산에서 출맥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질서 또는 격식을 취한다.

8) 박시익(朴時翼)(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127

용맥의 출맥이 산의 상부인 산정(山頂)에서 출맥하는 천맥(天脈), 산의 중부인 허리에서 출맥하는 인맥(人脈)과 산의 하부인 다리아래에서 출맥하는 지맥(地脈)의 세가지 경우가 있다. 출맥할 때의 용맥의 역량은 천, 인, 지맥의 순서이지만 출맥한 용맥이 변역(變易)을 거듭함으로써 혈장을 형성할 때까지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山頂

천맥(天脈)

중출맥(中出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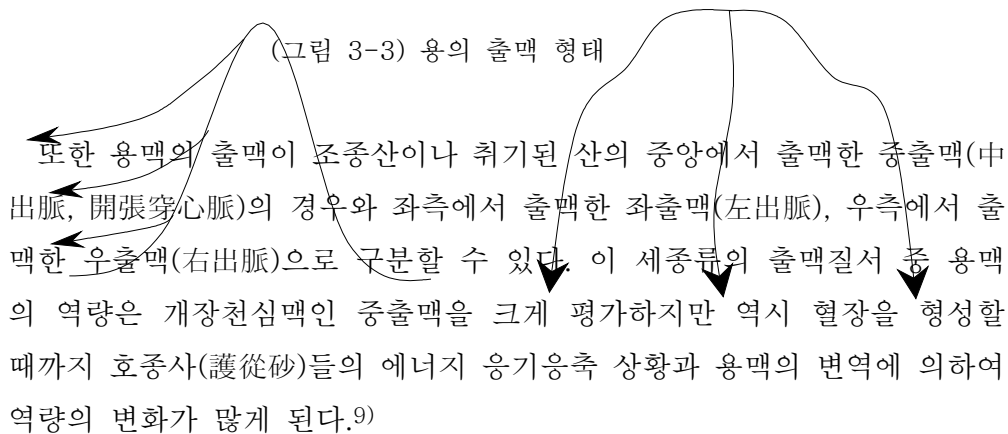
인맥(人脈)

(開張穿心脈)

지맥(地脈)

우출맥(右出脈)

좌출맥(左出脈)



산 정상에서 출발한 용이 혈에 이르기까지는 직선적인 형태와 곡선적인 형태의 두 가지가 있다. 직선적인 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약간의 변형을 갖고 있다.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운이 기울지 않으며, 중심을 갖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직선적 형태의 용은 ‘중심룡’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곡선적인 용이란 산 정상에서 혈까지 커다란 곡선을 이루고 있는 용으로, 곡선 형태에 따라 좌선룡(左旋龍), 우선

9) 이익중(李益仲)(1998). 『터와 명당』. 우성출판사. p.303 ~ 304 참조

룡(右旋龍), 혼합곡선룡 등으로 구분된다.

‘좌선룡’은 주봉에서 연결되어 내려온 용이 마치 사람의 왼쪽 팔과 같이 좌측에서 시작해 우측으로 곡선 방향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우선룡’이란 주봉으로부터 연결되어 내려온 용이 우측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곡선의 방향이 변화되면서 연결되는 용을 말한다. ‘혼합곡선룡’은 산의 주봉으로부터 연결된 용이 처음에는 좌선을 한 후에 다시 우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좌선과 우선의 변화를 갖고 있는, 즉 ‘S’자 같은 형태를 이룬 용을 말한다.



(그림 3-4) 용의 종류¹⁰⁾

혈은 중심룡이나 곡선룡에 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혈을 이루고 있는 지세에서 혈은 중심룡에, 청룡은 좌선룡에, 그리고 백호는 우선룡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2. 용의 앞과 뒤

용은 산의 봉우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능선을 이루며 평탄한 들판을 향해 점차적으로 낮게 내려가기도 하며, 물이 있는 쪽을 향해 내려가기도 한다. 용의 형태에 있어서 앞면은 비교적 지면이 균일하고 안정적이어서

10) 박시익(朴時翼)(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109

아름답고 밝은 광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용의 뒷면은 험한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 지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땅의 색깔도 어둡고 음산하다.

용의 움직이는 형태에 있어서 좌선통일 경우에는 용에서 내려다봤을 때 오른쪽이 앞면이 되며, 왼쪽이 뒷면이다. 반대로 우선통일 경우에는 오른쪽이 뒷면이고 왼쪽이 앞면이다.

지세의 기운을 분석할 때는 용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의 앞은 생기가 있어서 명당을 이룬다. 따라서 집터를 선정할 때는 용의 앞을 고르는 것이 좋다. 용의 뒷면은 흉가가 발생하기 쉽다.

용의 전면과 후면은 마치 종이의 앞뒤와 같이 거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그러나 햇빛이 앞면으로 비칠 때 뒷면은 음지가 되는 것과 같이, 명당은 용의 앞면에서만 이루어진다. 비록 작은 능선에 의해 구분되지만, 그 기운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3. 내룡의 영향

내룡(來龍)은 태조산과 중조산, 중조산과 현무, 현무와 입수사이에 각각 에너지(산의 기운)를 이동시켜주는 전선(電線) 역할을 하는 중간 용맥을 말한다. 내룡에 단절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하고, 튼튼하고 깨끗하며 법칙에 맞는 질서있는 변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내룡의 기운을 분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내룡맥(來龍脈)이 왕성하면 기세 좋은 자손(子孫) 난다.

내룡맥이 후부(厚富)하면 자손이 부유하다.

내룡맥에 가지맥이 많으면 자손이 많이 태어난다.

내룡맥이 광채가 나면 귀한 자손 난다.

내룡맥이 보룡(保龍)이면 후원자가 생긴다.

내룡맥이 순룡(順龍)이면 충신·효자가 태어난다.

내룡맥이 장룡(長龍)이면 발복이 오래간다.

내룡맥이 우뚝하면 독존자(獨尊者)가 난다.

내룡맥의 주룡(主龍)이 강하면 장손(長孫)이 흥하고,

내룡맥의 지룡(枝龍)이 강하면 지손(枝孫)이 흥한다.

내룡맥이 미약(微弱)하면 힘없는 자손이 태어난다.

내룡맥이 빈약하면 자손들이 곤궁(困窮)하다.
 내룡맥이 고룡(孤龍)이면 자손들이 외롭다.
 내룡맥이 흩어지면(파산:破散) 걸인(乞人) 자손 난다.
 내룡맥이 산만(散漫)하면 축첩(蓄妾)하는 자손 난다.
 내룡맥이 험난(險難)하면 방탕(放蕩) 자손 난다.
 내룡맥이 병합(併合)하면 자손들이 골육상쟁(骨肉相爭) 한다.
 내룡맥이 편룡(片龍)이면 불구 자손 난다.
 내룡맥이 단절(斷絶)되면 후손이 절손(絶孫)된다.¹¹⁾

4. 용의 변화

주산의 기운이 혈과 명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산과 혈 사이의 용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기운이 통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나무뿌리에서 나뭇가지의 꽃에 이르기까지 줄기와 가지를 통해 일관된 기운이 흐르는 것과 같다.

주산에서 출발한 용의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용의 중간 중간이 일정한 형태의 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산봉우리에서 혈까지 여러 형태로 변화되면서 기운을 전달하는 통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용의 형태가 변화되어 있으면 기운이 통하는 생룡(生龍)이며, 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기운이 없는 용이거나 죽은 용, 즉 사룡(死龍)이 된다. 따라서 용의 변화 형태로 기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용의 진행은 그 방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먼저, 용이 마치 지(之)자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좌우진행형’이라고 하는데, 뱀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구불구불 움직이는 형태와도 비슷하다. 사람의 걸음걸이도 발자국만 보면 좌측과 우측으로 구불구불 변화하여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대략 60센티미터 폭의 발자국을 그리며 나가는 사람을 건강한 사

11) 장용득(張龍得)(1980). 『명당론(明堂論)』. 양정사. p.178~180 참고
 박시익(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112~3 참고

람으로 본다. 건강한 용의 걸음은 15미터를 한 걸음, 즉 한 폭으로 본다. 따라서 15미터마다 좌측과 우측에 발자국과 같은 형태의 변화를 이루며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변화 과정으로 본다.

용에 따라서는 걸음의 폭이 20미터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30미터를 넘어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작은 용으로 해석한다. 좌측과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이루는 변화 각도는 30도가 대표적이며, 힘이 강한 용일수록 변화 각도가 커 90도를 이루는 것도 있다. 반면, 힘이 약한 용은 30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룡인 경우에는 변화 각도가 없다.

용이 솟아올랐다 떨어지고, 다시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는 형태인 ‘상하진행형’도 있다. 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평소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용은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 하늘로 솟아올라 가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전해진다. 단 한 번에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므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솟아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상하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산의 능선이 높았다 낮아지고, 다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형태를 용이 승천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상하운동을 진행하는 용의 기운을 강하게 본다.

또 용이 내려오는 도중 하나의 마디에서 좌측과 우측, 그리고 전면의 세 방향으로 뻗어 나가 내룡까지 합해 전체적으로 십자 모양을 이루는 것도 있다. 십자맥에서 주룡은 직선으로 내려가고 두 개의 맥은 좌측과 우측으로 동시에 뻗어 나가 백호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십자맥은 용의 기운이 매우 강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래서 십자맥을 왕기(王氣)를 갖고 있는 용으로 해석하여, 왕이나 큰 재벌이 나온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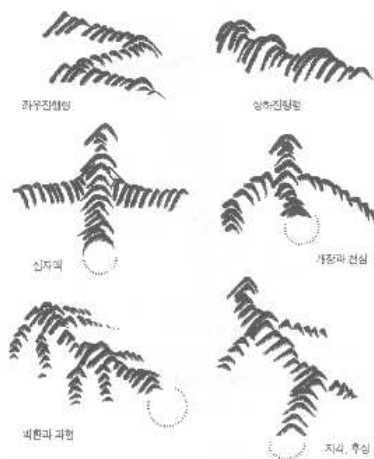
주산과 혈 사이에 있는 주룡은 개장(開帳)과 천심(穿心)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개장’이란 장막을 병풍과 같이 넓게 펼친다는 뜻으로, 산이 병풍과 같이 주산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넓게 펼쳐진 것을 뜻한다. 개장된 산의 형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좌우로 넓게 펼치고 있는 모습과도 같

은데, 좌우 양쪽의 날개는 동일한 정점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정점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이때 동일한 지점에서 좌우 양날개가 출발한 경우에는 십자맥이 되어 더욱 강한 혈을 이루게 된다.

‘천심’이란 주산의 기운이 혈에 이르기까지 맥이 통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주산의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주봉의 기운이 강력해야 하며 동시에 생룡이어야 한다.

용의 변화에 따라 박환(剝換)과 과협(過峽)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박환’이란 강하고 험한 용이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하며, ‘과협’은 용으로 관통하는 기운이 혈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하는 목과 같이 가늘고 강한 용을 말한다. 용의 형태가 바뀌면 기운의 종류도 강한 기운으로부터 생기로 변화되며, 과협에는 강한 기운이 밀집하여 통과하므로 마치 기운을 묶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속기(束氣)’라고도 한다.

용은 산의 봉우리를 뒤로하고 낮은 지역을 향해 내려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마디에서 받쳐 주는 힘의 진동에 의해 앞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때 뒤에서 받쳐 주는 용을 ‘지각(枝脚)’, 혹은 ‘후장(後杖)’이라고 한다. 이 지각의 크기에 따라 용의 힘이 결정되는데, 큰 지각을 갖고 있는 용은 강한 힘으로 전진하게 되며, 작은 지각을 갖고 있는 용은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약한 용이 된다. 지각은 청룡이나 백호가 되기도 하는데, 지각이 하나의 봉우리를 일으킨 후에는 주룡으로 변화되어 혈을 이루기도 한다.



(그림 3-5) 용의 변화 형태¹²⁾

이상적인 생룡은 평균 15미터마다 한 절(節)을 이루고 있다. 절 수는 곧 발복 기간을 의미하며, 한 절의 발복 기간은 30년이다. 절은 바위나 새로운 작은 가지로 마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혈에서 주봉까지의 생룡 길이가 45미터이면 3절이 되며, 300미터이면 20절이 된다.

그리고 혈에 연결된 용의 길이가 3절이면 90년 동안의 발복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용이 중간에서 끊겼다면 혈에서부터 끊겨진 곳까지의 절 수를 세어 발복 기간을 계산하는데, 끊어진 이후의 용에 대해서는 발복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각 산마다 절의 길이는 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에 연결된 용의 절 수는 현지에서 따져 봐야 한다.

5. 용의 종류와 형상

용의 기운은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열두 기운을 ‘용세 12격(龍勢十二格)’이라고 한다.

12격 가운데 생룡(生龍)·복룡(福龍)·강룡(強龍)·순룡(順龍)·진룡(進龍)은 선룡(善龍)이라고 하며 선한 기운을 발산하기 때문에 길(吉)한 용이다. 악한 용으로는 사룡(死龍)·약룡(弱龍)·역룡(逆龍)·퇴룡(退龍)·병룡(病龍)·살룡(殺龍)·겁룡(劫龍) 등이 있으며 악성적인 기운을 발산하여 흉(凶)한 용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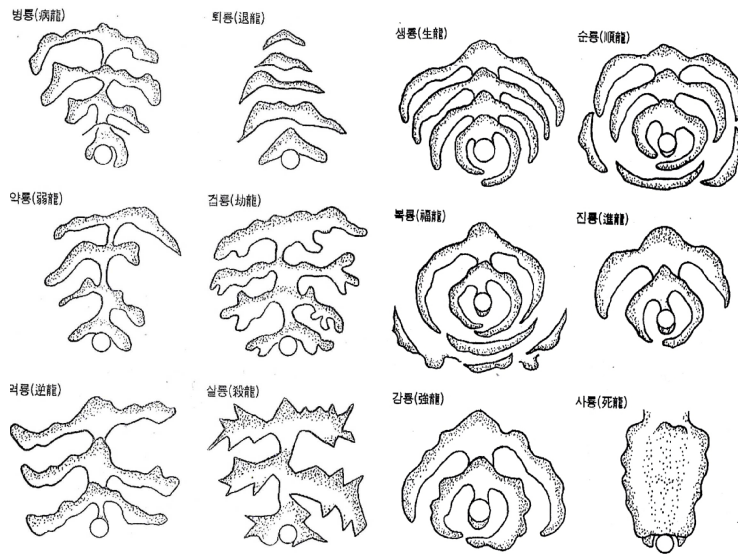
1) 선룡(善龍)

- (1)생룡 : 산세가 수려하고 박환이 잘되어 기복과 굴곡의 변화가 활발한 생기 있는 용이다.
- (2)강룡 : 산세가 고대하고 웅장하며 산맥의 변화 형상이 크고 기세가 강한 용이다
- (3)진룡 : 산맥이 역행하지 않고 변화가 순조롭고 질서 정연한 용이다
- (4)순룡 : 산세가 유순하고 지각 변화가 잘 이루어져 순하게 생긴 용
- (5)복룡 : 산세가 후덕하고 풍만하며 기상이 수려하고 주위 보국이 잘되어 부귀가 겸하는 용이다

2) 흉룡(凶龍)

12) 박시익(朴時翼)(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115

- (1)사룡 : 산세가 험하거나 경직되고 용세의 변화가 없어 생기가 없는 용이다
- (2)약룡 : 산맥이 약하고 변화가 없어 힘이 쇠약하고 지각이 생기지 않는 나약한 용이다.
- (3)병룡 : 산세의 흐름이 변화가 없고 상처와 하자(瑕疵)가 많은 용이다.
- (4)겁룡 : 산세의 모습은 화형산과 같이 끝이 뾰족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용이다
- (5)퇴룡 : 산맥이 가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호위하는 산에서 갑자기 이탈하여 멈추어 버린 기가 흩어진 용이다
- (6)역룡 : 산맥이 뻗어가다가 결혈지 앞에서 갑자기 치켜들어 버리거나 역행 또는 배신하여 등을 돌리는 형태의 용이다
- (7)살룡 : 산세가 높고 험악하여 계곡이 깊고 살기가 등등한 무서운 용



(그림 3-6) 용세 12격¹³⁾

6. 에너지의 이동

산의 기운(에너지)은 용맥을 따라 이동한다.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속성을 지녔다. 에너지의 크기는 무게(질량)과 비례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큰 태조산에서 중조산으로, 중조산에서 소조산으로 이동

13) 이익중(李益仲)(2001). 『길한터 흉한터』. 우성출판사. p.144 ~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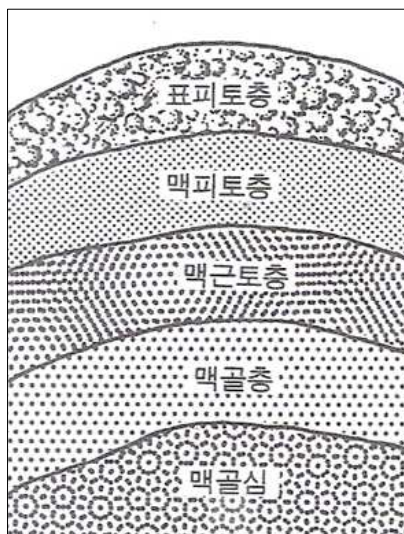
하며 최종적으로는 혈에 다다른다.

산의 지층은 일반적으로 표피층(表皮層), 맥피토층(脈皮土層), 맥근토층(脈筋土層), 맥골층(脈骨層), 맥골심(脈骨心)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피층(表皮層)은 풀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산화된 토질층이고, 맥피토층(脈皮土層)은 맥근토층을 보호하는 토질층으로서 조직이 단단하거나 강한 석질(石質)로 되어 있기도 하다.

맥근토층(脈筋土層)은 혈심토(穴心土)로서 혈토가 있는 토질층이다. 조직이 단단하고 윤기가 있으며 비석비토(非石非土)의 형태를 나타낸다.

맥골층은 산의 뼈대로서 주로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맥골심은 그 뼈대의 중심부에서 가장 강한 암석이다.



(그림 3-7) 지맥의 단면도¹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경로는 맥근토층의 뾰족한 표피 부분이다. 에너지는 뾰족한 부분에 모이는데 이것을 첨단표피작용(尖端表皮作用)이라고 한다. 따라서 산의 기운은 용맥의 한 가운데로 맥근토층(脈筋土層)을 타고 흐른다.

14) 이익중(李益仲)(2001). 『길한터 흥한터』. 우성출판사. p.228

제3절 혈과 명당

명당(明堂)이란 좋은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땅을 말한다. 좋은 기운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며 생활에 의욕을 주는 기운이다.

명당 중에서도 특히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땅을 혈(穴)이라고 한다. 생명체마다 생식기가 있듯이 거대한 산에도 생식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혈이다. 혈은 곧 생기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풍수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당과 혈을 찾는 것인데 지세를 분석해서 혈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뿌리·줄기·잎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야 하듯이 산에서 혈이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뿌리에 해당하는 봉우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능선(龍), 그리고 잎에 해당하는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모두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검토한 뒤에야 혈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1. 주봉(主峰)의 기운과 영향

혈의 기운은 주봉의 기운이 용을 통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산에서 정상은 땅 기운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정상이 아름답게 생긴 산이 기운도 좋다고 보며, 생기가 있는 명당도 이러한 곳에 구성된다.

산 정상이 험하거나 불안하면 주변 땅의 기운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이러한 곳에서는 명당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산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을 보통 주산이라고 한다. 주산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산봉우리는 갓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원형이고 탐스러운 형태가 가장 좋다. 산에 골짜기가 많으면 늪은 호박처럼 줄기가 많이 있어서 생기가 부족한 산으로 본다.

主峰이 神聖하면 훌륭한 人物이 배출된다.

主峰이 기운이 旺盛하면 강력한 指導者가 배출된다.

主峰이 맑은 기운을 發散하면 高級 公務員이 배출된다.

主峰이 아름다우면 英雄이 태어난다.
 主峰이 厚富하면 財閥이 배출된다.
 主峰이 흠어져 있으면 천한 子孫이 태어난다.
 主峰이 無氣力하면 나약한 子孫이 태어난다.
 主峰이 散亂하면 不和하는 子孫이 태어난다.
 主峰이 험악하면 흉한 子孫이 태어난다.
 主峰이 힘이 약하면 약한 사람이 태어난다.
 主峰의 기운이 陰濕하면 盜賊이 태어난다.¹⁵⁾

2. 혈(穴)의 발생

혈(穴)은 자연에 있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결합해서 발생한다. 양기는 공기중에 분포되어 있는 양전하이고 음기는 땅에 분포되어 있는 음전하이다. 비오는 날 번개와 우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높은 산이나 뾰족한 나무에 음전하가 많이 모여 있어 양전하가 서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혈도 하늘의 양전하와 땅의 음전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풍수지리에서는 양래음수(陽來陰受)라고도 하는데, ‘陽이 오면 陰이 붙잡는다’는 뜻으로, 양과 음이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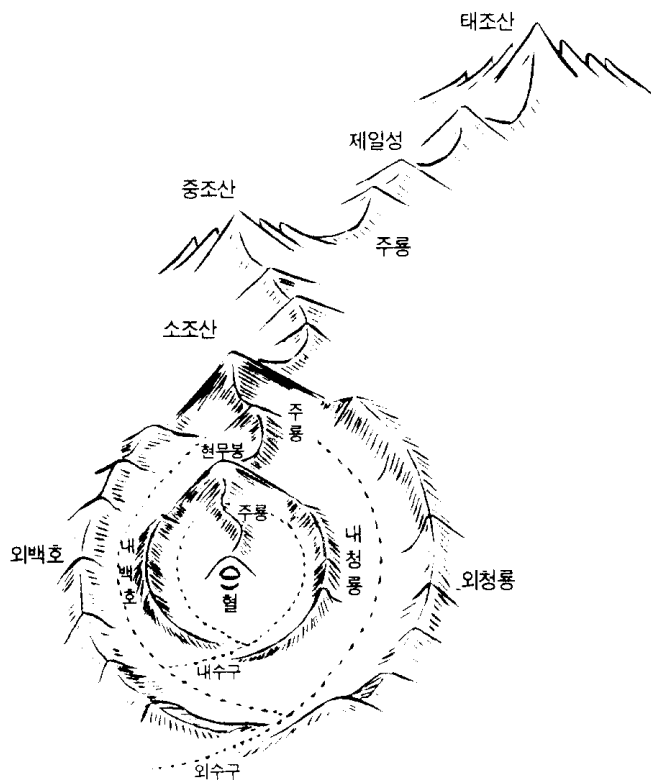
음전하와 양전하가 장기적 결합을 이뤄 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전하가 모이는 산과 용이 있어야 하고, 공기 가운데 양전하를 만들어 주는 수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룡(靑龍)·백호(白虎)·주작(朱雀)·현무(玄武) 같은 바람막이가 있어야 한다. 사신사(四神砂)가 바람을 막아 주는 내부에서 지표면의 음 기운과 공기 중의 양 기운이 서로 장기적으로 결합해 밝은 기운이 발생한다.

주산에서 발생한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태조(太祖), 중조(中祖), 소조(小祖), 입수(入首), 혈판(穴板)의 5단계를 따르며 각 단계 사이에는 용(龍)이 있어서 앞 뒤 기운을 이어 준다. 만약 단계사이의 용이 끊

15) 장용득(張龍得)(1980). 『명당론(明堂論)』. 양정사. p.176~178 참고
 박시익(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125~126

어지면 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약해진다.

용(龍)의 5단계 과정 가운데 태조(太祖)는 주산에 있는 주봉, 곧 용이 연결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중조(中祖)는 태조로부터 내려오던 기운이 새롭게 뭉쳐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를 말하고, 소조(小祖)는 중조로부터 내려오던 기운이 다시 뭉쳐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를 말한다. 또 입수(入首)는 소조로부터 용을 통해 내려오던 기운이 혈을 이루기 위해 기운을 단단하고 강하게 뭉쳐 놓은 지점을 말하며, 혈판(穴板)은 입수에 들어온 기운이 혈을 만들기 위해 만든 널찍한 공간을 말한다. 혈판 중심부에는 혈이 자리하게 되고 혈판 주변 평탄한 공간은 모두 명당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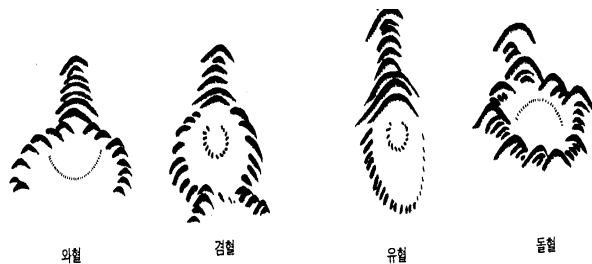
(그림 3-8) 용의 5단계 변화 과정

3. 혈(穴)의 구조와 형태

혈(穴)은 용의 거의 끝부분, 경사진 면이나 평탄한 지면위에 형성된다. 대부분의 용(龍)이 암석으로 되어 있듯 혈도 암석으로 구성된 당관의 중상(中上) 부위에 자리한다. 혈은 당관에서 입수와 주작, 좌우 양쪽의 선익에 둘러 싸여 있으며, 용(龍)·입수(入首)·선익(蟬翼)·전순(纏唇) 등 여러 가지의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다. 혈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2m 정도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방 각 6m가 되는 넓은 혈도 있다. 혈의 생기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많으며,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밀도가 낮아진다.

穴은 형태에 따라 와혈(窩穴)·겸혈(鉗穴)·유혈(乳穴)·돌혈(突穴)로 구분된다. 이 중 와혈과 겸혈은 우묵한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음혈(陰穴)이라고 하며, 유혈과 돌혈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어 양혈(陽穴)이라고 한다.

와혈은 주룡에서 내려온 기운이 혈관에서 좌우로 각각 맥을 벌려 소쿠리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겸혈은 주룡에서 내려온 기운이 혈관을 이루는 동시에 혈관 양쪽 끝에 받쳐 주는 맥을 갖고 있다. 마치 쇠뿔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어 우각이라고도 한다. 유혈은 용이 길게 뻗어 내려온 형태로 여성의 가슴과 같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돌혈은 엮어놓은 솔처럼 중심 부분이 둥그렇게 솟아오르고, 그 주변에는 솔발과 같은 바위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림 3-9) 혈의 4가지 종류¹⁶⁾

16) 박시익(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129

혈은 암석으로 된 입수와 선익, 그리고 전순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혈 자체는 특수한 토질로 구성되어 있다. 혈을 구성하고 있는 혈토는 일반 흙과는 그 모양새가 다르다. 겉에서 보기에 마치 바위와 같으나 실제로는 바위와 흙의 중간 성분을 갖고 있는 ‘비석비토(非石非土)’다. 삽이나 곡괭이 같은 가벼운 기구로도 손쉽게 파낼 수 있으며, 혈토 덩어리는 바위 같은 결을 촘촘히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색은 금빛 같은 밝은 색채를 띠고 있으며, 때로는 시루떡처럼 층마다 색이 다르기도 하다. 혈토는 구성이 매우 치밀해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나무뿌리나 벌레, 바람 등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비한 기운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혈토에 시신을 묻으면 외부의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못하고 혈토에서 발생하는 생기가 시신을 감싸므로 시신이 안전하게 보존된다.

혈에서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동일한 지점에서 순환하며 조화를 이루으로써 열과 빛을 발산한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따뜻하고 밝아 명당을 이루는 것이다.

제4절 사신사(四神砂)와 명당

혈을 중심으로 주산을 등지고 지대가 낮은 곳을 향해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좌측에 있는 산을 청룡(靑龍), 우측에 있는 산을 백호(白虎), 앞에 있는 산을 주작(朱雀), 뒤에 있는 산을 현무(玄武)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전주작(前朱雀)·후현무(後玄武)라고 한다. 이것을 사신사(四神砂)라고 한다.

1. 사신사의 기능

사신사의 기능은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신사가 있는 곳이 모두 혈이나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곡면 반사경의 기능, 볼록 렌즈의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기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바람은 기운을 운반하기도 하지만 강하게 부는 바람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켜 생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강한 바람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사신사가 사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바람을 막고 생기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장풍(藏風)’이라고 한다.

청룡과 백호가 바람막이의 기능을 수행하고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당을 앞으로 하여 혈을 마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삼태기 형태와 같이 둥그렇게 원형을 이루어 감싸고 있어야 한다. 청룡과 백호가 명당을 향해 감싸고 있지 않더라도, 명당 쪽을 향해 아름답게 마주 보고만 있어도 바람막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룡과 백호가 명당 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막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반사경이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곡면 반사경은 반사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 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 나무, 강 등 모든 물체는 자체만의 빛을 가지고 햇빛이나 달빛을 반사한다. 따라서 태양과 달빛이 청룡과 백호에 비추게 되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된다. 이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는 경우, 이 초점에는 신비한 기운, 즉 생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반사경의 초점에 생기가 발생하는 공간을 혈이라고 하며, 혈 주변의 공간을 명당이라고 한다. 여러 종류의 빛이 모이는 공간은 그 빛으로 인해 이름 그대로 명당을 이룬다. 따라서 청룡과 백호가 반사경의 기능을 완전하게 해야 생기가 많아져 명당을 이루게 된다.

볼록렌즈는 분산되어 있는 빛을 하나의 초점에 모음으로써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

는 모양이다. 이 둥근 형태의 청룡 능선은 마치 볼록렌즈의 둥근 부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볼록렌즈 형태의 청룡이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 기운을 모아 하나의 초점을 만들게 된다. 이처럼 청룡은 혈의 좌측에서, 백호는 혈의 우측에서, 주작은 혈의 앞에서, 그리고 현무는 혈의 뒤에서 각각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네 개의 볼록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이 되고, 여기에 엄청난 양의 생기가 모이게 되는 것이다.¹⁷⁾

2. 현무(玄武)의 역할

현무는 용이 입수(入首)하기 전 입수에서 가장 가까운 특출한 산으로 용맥의 에너지가 집합되어 입수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한다. 현무는 혈에 지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지세가 된다. 따라서 산세의 규모나 기상이 청룡이나 백호, 주작보다 크고 힘차야 하며, 주룡에서 개장과 천심, 박환 등 몇 가지 변화 과정을 이루는 생룡이어야 한다.

현무를 주산(主山) 또는 소조산(小祖山)이라고도 한다. 현무가 혈을 바라보며 약간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좋으며(수두:垂頭), 머리를 곧게 세우거나 뒤로 돌아 앉은 형상은 좋지 않다. 현무는 혈의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흘러드는 물을 막아주며 혈에다 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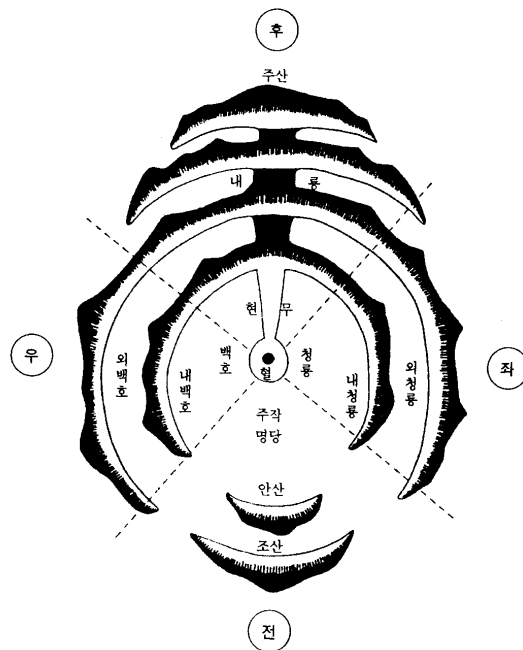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되는데, 주작이 사회적인 평판이나 여론 등 외부적인 기운을 나타내는 데 비해 현무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

17) 박시익(1999). 『한국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140~148 참조

3. 청룡(靑龍)과 백호(白虎)의 역할

혈을 중심으로 좌측에서 혈을 호위하고 있는 산을 청룡(靑龍), 우측에서 혈을 호위하고 있는 산을 백호(白虎)라고 하며, 청룡과 백호를 같이 부를 때는 □□용호(龍虎)□□라고 한다.

청룡이나 백호가 혈을 중심으로 여러 겹으로 감싸져 있을 때 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청룡·백호를 내청룡(內靑龍)·내백호(內白虎)라하고, 그 다음부터 있는 청룡 백호를 외청룡(外靑龍)·외백호(外白虎)라고 부른다. 내청룡과 내백호는 하나지만 외청룡과 외백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3-10) 사신사¹⁸⁾

청룡과 백호는 혈을 중심으로 한 겹보다는 이중 삼중 여러 겹으로 감싸주면 감싸줄수록 좋다. □□혈□□뒤의 주산에서 산맥이 연결되어 좌·우로 마치 양팔과 같이 나와 혈을 감싸주는 청룡·백호를 본신용호(本身龍虎), 주산에서 산맥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외부 산에서 나와 청룡·백호가 된 것을 외산용호(外山龍

18) 박시익(1999). 『한국의풍수지리와건축』. 일빛출판사. p.138

虎), 한쪽은 본신에서 나오고 다른 한쪽은 외산에서 나와 청룡·백호가 된 것을 혼합용호(混合龍虎)라고 한다. 이 중에서 주산에서 산맥이 연결된 본신용호가 혈에 가장 많이 생기를 발생시킨다.

청룡과 백호는 외부의 바람이 혈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막아주고 골짜기 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혈의 습기를 조절해 주며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청룡은 남성(男性)의 기운과 자식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 기운, 재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백호는 여성(女性)의 기운과 재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4. 주작(朱雀)의 역할

혈 앞에 가까이 있는 안산(案山)과 멀리 있는 조산(朝山)까지 혈 앞에 있는 모든 산을 주작이라고 한다. 안산은 재산·지위·사회적 평판과 같은 기운과 연관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는데, 현무가 주인이라면 주작은 손님 또는 보조자로서 현무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 이상적이다. 안산과 조산에서 생기를 보내는 지세에서는 계급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로부터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된다.

1) 안산(案山)

혈 앞에 가까이 있는 낮고 작은 산을 안산이라고 한다. 안산은 수려하고 단정해야하며 너무 크거나 혈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혈을 억압하는 격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평야 지대 등에서는 안산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혈보다 약간 높은 발·언덕·구릉 등이 안산을 대신한다.

안산은 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산보다 혈에 생기를 빨리 전달시키고 혈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며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조산(朝山)

안산의 바로 뒤부터 혈을 향하여 성곽처럼 겹겹이 둘러싼 높고 낮은 모든 산을 조산이라고 한다. 주산(玄武)과 조산과의 관계는 주산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신하가 임금을 알현하는 듯 손님이 주인을 뵈는 듯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상이다.

조산은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보국(保局)을 안정시켜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5절 물과 명당

1. 물의 역할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根源)이다. 풍수지리에서 물은 □□혈□□의 습도를 조절하고 명당의 생명체에 영양소를 공급하며 국세(局勢) 내의 기후 조절과 생기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산의 성질은 움직이지 않고 정(靜)하기 때문에 음(陰)이고 물의 성질은 움직여 동(動)하므로 양(陽)으로 본다. 산수(山水)를 인체에 비유하면 산은 형체(形體)와 같고 물은 혈맥(血脈)과 같다. 사람의 생장영고(生長榮枯)는 모두 혈맥으로 비롯된다. 이 혈맥이 순조롭게 돌아야 건강하고 조화를 잃으면 질병을 얻는다. 산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풍수에서 돌은 사람의 뼈와 같고 흙은 살과 같으며 물은 피와 같고 맥은 힘줄과 같으며 초목은 모발과 같다.¹⁹⁾

생기(生氣)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 산의 기는 물을 만나지 않으면 멈추지 아니하고 물의 기는 산을 만나지 않으면 조화(調和)하지 않는다.²⁰⁾

물은 크기에 따라서 바다, 강, 댐, 호수, 계곡, 밭고랑, 연못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그런데 명당은 바다나 강과 같이 큰물이 있는 곳에서는 형성되기 힘들고 개천이나 논두렁, 밭고랑과 같은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 형성된다. 심지어 실개천과 같은 매우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도 명당이 형성되기 때문에, 명당은 공기 중에 수분만 있어도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당은 물과 산의 기운이 결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물이 지나치게 많은 곳에서는 균형을 잃어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땅)은 사람의 정신을 관리하고 물은 재물을 관리하므로 산과 물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조화를 이룬다. 생기는 양기와 음기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며, 양이나 음 한쪽만 강한 경우 생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큰 강이나

19) 김기선(2000). 『풍수지리학개론』. 형설출판사. p.171

20) 최길성(譯). 『조선의풍수』(村山智順). 민음사. p.80

바닷물은 강한 음기이므로 양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당을 이루기 어렵다.²¹⁾

바람은 물길을 따라 부는데 직류하는 하천에는 강한 바람, 즉 살풍(殺風)이 불고, 곡류하는 하천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분다. 물은 자연의 선형을 따라 굽이 굽이 유유히 흘러야하고 산과 물은 만남이 많아야 한다.

풍수지리에서는 예로부터 산맥의 흐름이나 물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역동성(力動性)이 있으면 좋은 모양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나쁜 모양으로 보았다. 물은 구불구불하게 나선형(螺旋形)으로 회전 운동을 하면서 흘러야 생기가 있다. 구불구불하게 물이 흐르면 바람과 물의 속도가 약해져 그들이 이동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영양 자원을 생명체에 공급하고, 반대로 강한 바람과 급한 물살은 주변의 에너지와 토양 자원을 빼앗아 간다.

2. 득수(得水)와 수구(水口)

득수(得水)란 혈장에 수기(水氣)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물을 얻는 것을 말하며, 지세에서 물이 처음 보이는 위치를 말한다. 명당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물은 유동적이어서 쉽게 많아질 수도 있고 부족하기도 쉬워 명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물이 너무 많거나(太過) 너무 모자라지(不及) 않는 균형(均衡)과 조화(調和)가 득수의 요체이다.

물의 악성(惡性)을 피하고 선성(善性)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장은 물을 받아먹는 역수(逆水) 방향이어야 한다. 물이 나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

둘째, 물은 혈장의 전후좌후를 막론하고 직류(直流)가 치고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 물은 구불구불(九曲水)하게 서서히 다가와서 혈장을 감아 돌면서 유정(有情)하게 멈추고 서서히 나가야 한다.

셋째, 혈장 앞에 모였다가 나가는 물도 구불구불하게 서서히 빠져나가야 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물은 혈장을 감아 싸듯(彎弓水) 해야 한다. 물길이 혈장을 등지면(反弓水) 나쁘다.

다섯째, 직사수(直射水)가 입수(入首)를 치면 장손은 요절하고, 다른 자손도

21) 박시익(2006). 『풍수지리로 본 서양 건축과 음악』. 도서출판 일빛. p.315

무너진다.

여섯째, 청룡과 백호 내의 물이 급하게 흘러가면서 요란한 울음소리 비슷하게 소리를 내면 줄초상이 난다.

일곱째, 물은 맑아야 하고 혼탁하거나 검거나 황톳물은 나쁘다.²²⁾

수구(水口)란 물이 혈장에 수기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혈장 앞에서 빠져나가 마지막 보이는 지점을 말한다.

수구로 나가는 것은 비단 물뿐만 아니라, 바람도 빠져 나간다. 명당에서는 수구를 통해 물이 빠져 나가더라도 바람은 빠져 나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물이 흘러 나가는 하류, 즉 수구가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세에서는 물이 산을 감싸 안고 돌아 나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물은 산을 돌아 빠져 나가지만 바람은 직접 빠져 나가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형태가 곧 막힌 수구이다.

만일 수구에 산이 없어 넓은 강물이 일직선상으로 흘러 나가게 된다면, 동시에 바람도 빠른 속도로 흘러 나가게 된다. 이러한 수구를 막힌 수구의 반대 개념으로 열린 수구라고 하기도 하고, 좁은 수구에 반해 넓은 수구라고 하기도 한다. 수구가 막힌 지세에서는 생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큰 부자나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 그러나 열린 수구에서는 생기가 전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과 재물, 명예를 잃게 된다.

수구를 이루는 용은 청룡이나 백호에 관계없이 반드시 역수(逆水)를 해야만 한다. 수구를 이루는 용이 역수를 하면 그 수구는 좁은 수구가 되고, 역수를 하지 않는다면 넓은 수구인 동시에 산수동거(山水同去 : 산과 물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물)가 되기 때문이다. 산수동거 지세에서는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의 기운과 산의 기운이 평행선을 이루어 두 기운이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수구를 이루는 용의 역수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수구에서 기를 모아 주는 힘도 커지며, 이에 따라 혈에 발생하는 생기도 더욱 많아지게 된다.

22) 이익중(李益仲)(2001). 『길한터 흉한터』. 우성출판사. p.206 ~ 207

3. 수맥(水脈)

지표면 하부에는 위치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건수(乾水)와 수맥(水脈)으로 구분된다. 건수는 비 등으로 지상에 모인 물이 지하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말하며, 투수성이 좋은 흙 또는 암반사이로 충을 이뤄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지하수를 수맥(水脈)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맥은 지구의 화산활동이나 단층작용 또는 습곡운동 등으로 형성된 암반이나 토양의 틈새로 흐르는 물줄기이다.

이러한 수맥은 땅속 어느 곳에서도 대부분 존재하고 있으며 보통 지하 10~40m 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지상의 온도와는 관계없이 항상 13℃~14℃의 온도를 유지하며, 그 폭도 다양하여 손가락 같은 작은 수맥에서부터 수십 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수맥도 있다.

지상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수맥의 지하수는 압력차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산 아래에서 산위로 흐르는 경우도 있어 산꼭대기에서도 지하수가 나는 곳도 있다.

수맥은 지표로부터 계속적으로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체적인 힘을 발휘한다. 흙과 흙의 틈새로 수분을 공급 받으려는 힘은 수직적으로 작용하여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도 금이 가게 하거나 잘 포장된 도로 등도 갈라지게 한다. 수맥은 지상 수십 미터의 고층건물도 투과하는 고에너지여서 지상의 어떠한 구조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직으로 균열을 일으키면서 그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수맥에 영향을 받는 식물들은 곧게 자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 키가 더 크지 않고 말라 죽는 상태가 된다.

수맥은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맥 상부의 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에겐 수맥의 기운에 의해 중풍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앓게 한다. 수맥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현대 의학으로도 규명이 어려워, 오직 잠자리를 바꿔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고층 아파트인 경우에도 수맥의 영향은 마찬가지로여서, 1층이나 10층의 동일한 장소에서 맥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외건상

살기 좋은 명당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지하에 수맥이 흐르게 되면 좋은 터가 될 수 없다.

수맥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자력·음파측정 등의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추(錐: 振動子)나 막대(棒: Rod)를 이용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도 잠재능력이 있어 오감(五感)으로 느끼지 못한 미세한 기운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운이 손을 통하면서 증폭되며 추나 막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손쉬운 방법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버드나무 가지 중 끝부분이 Y자 형태로 벌려진 것을 꺾어, 잘려진 부분을 앞쪽으로 해서 양 손으로 수평선이 되게 쥔 후에 걸으면, 수맥이 흐르는 부분에 이르러 버드나무 끝부분이 갑자기 땅 쪽으로 휘어져 내려가는 증상을 보인다.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흡수하는 식물인데, 잘려진 부분에서는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제6절 바람과 명당

바람은 두 곳 간의 기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이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삭풍(朔風)이 몰아치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다.

음택에서는 지기가 주인이고 바람은 주인인 산에 대하여 조연분적(助緣分的) 작용을 한다. 그러나 양택에서는 바람은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를 말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에 제일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바람이 잔잔한 곳이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흉지로 해석한다. 바람은 대기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따라서 바람이 잔잔한 고기압 지대는 명당이며 바람이 세게 부는 저기압 지대는 흉지이다. 기압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씨에는 기압이 떨어지고 신경통이나 관절염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저기압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안지방에서는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海風)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陸風)이 분다. 내륙지방에서는 곡풍과 산풍이 분다. 낮에 태양빛에 의해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데워진 공기가 지면을 따라 골짜기를 타고 산으로 올라간다. 이 바람을 곡풍(谷風)이라고 한다. 해가 지면 산 정상에서 찬바람이 지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온다. 이 바람을 산풍(山風)이라고 한다. 곡풍은 해가 뜬 후 불기 시작해서 정오에 절정을 이루고 해가 진 후 산풍으로 바뀐다.

명당은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잔잔한 바람이 있는 곳이다. 시속 6.4km까지의 1계급 바람²³⁾, 즉 경풍을 명당의 바람이라고 한다.²⁴⁾

풍수지리에서 바람의 선용(善用)은 장풍(藏風)인데, 바람을 막아버리는 방풍(防風)과는 의미가 다르다. 방풍을 하여 바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 안의 공기는 순환조절이 되지 못하고 기(氣)가 폐색(閉塞)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순한 바람을 받아들여서 공기가 순환 조절되어야 생기가 육성되는 것이다.

바람의 속도는 땅의 경사도와 관련된다.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바람의 속도도 늦어진다. 바람이 흐르는 곳에는 바람소리가 있다. 바람소리가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은 편

23) 1806년 영국 해군 중령 보퍼트(Francis Beaufort)는 바다에서 풍력의 관측과 분류를 위해 12계급의 기준을 고안했는데 이를 보퍼트 풍력계급(Beaufort Wind Force Scale)이라 한다.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시속 0~1.6km의 공기 흐름은 바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12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1계급 바람은 경풍(light air)이라고 하며 연기가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이나 풍향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24) 박시익(2006). 『풍수지리로 본 서양 건축과 음악』. 도서출판 일빛. p.309

안하고 행복하다. 바람소리가 훽한 곳에서는 공포를 느낀다. 좋은 땅이란 바람소리가 아름다운 곳이다.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 놓은 정자는 사람들이 모여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바람을 쐬는 쾌적한 공간으로서, 대체로 강이 시원하게 바라보이는 곳에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정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어서 잠을 자게 되면 사람의 기운을 잃게 하는 곳이 된다. 그러므로 정자 터와 같이 전망이 좋고 시원한 곳은 명당 터나 집터로 좋지 않다.

제4장 고인돌의 歷史

제1절 고인돌의 考古學的 背景

1. 고인돌의 名稱

고인돌은 세계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거석문화의 한 무덤형식이다. 일반적으로 거석(megalithic)이라는 어휘는 그리스어의 ‘크다’(mega, large)라는 말과 ‘돌’(lithic, stone)이란 단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고인돌도 당연히 거석을 이용하여 만든 무덤의 형태를 말한다. 한자로는 지석묘(支石墓)라고 하는 데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돌이 고인 무덤’을 의미한다. ‘고인돌’이라는 명칭이 한자용어인 ‘지석묘(支石墓)’라고 최초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李奎報)에 의해서였다.²⁵⁾ 고인돌의 외형상 탁자모양인 것에 유래해 돌멘(dolme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는 켈트어의 ‘탁자’(dol)와 ‘돌’(men)의 합성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석묘라는 명칭보다는 순수 우리말인 고인돌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고인돌의 명칭은 지역이나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표기되고 있으나 고인돌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역할은 동일하다. 고인돌을 구성하는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덧개돌은 개석(蓋石)·상석(上石)등으로 불리는 데, 지상에 노출된 커다란 돌을 의미한다.

킴돌은 지석(支石)·고임돌·받침돌·족석(足石)·벽석(壁石)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덧개돌을 받치는 역할을 하면서 묘실(墓室)을 구성하기도 한다.

돌무지(積石)는 덧개돌 아래의 무덤방 주위에 넓게 깔려있는 돌들을 의미하는 데, 무덤방 주변을 보강하면서 덧개돌의 무게가 무덤방에 직접 받지 않고 분산되도록 한다.

25) 유태용(兪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98 참조

무덤방(墓室)은 널방이라고도 불리며 시신이 안치되는 곳이다.

판석(板石)은 무덤방(石室)을 위에서 덮고 있는 넓적한 돌을 말하며 한 개인 경우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 판석은 시신을 보호하면서 덮개돌의 무게로부터 무덤방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고인들의 起源

우리나라에서 축조된 고인들의 기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다. 이는 고인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우리나라 고인들의 기원을 세계사적 측면에서 연관성을 찾아보려는 입장과 한국 고대의 동이(東夷) 또는 예맥사회(濊貊社會)의 내재적 발전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고인돌 연구의 초기부터 주장된 학설은 동남아 전래설이다. 도유호는 유럽의 지석묘가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고, 황해를 건너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²⁶⁾ 김병모(金秉模)는 벼농사의 기원지가 동남아시아이고 벼농사가 해류를 따라 민간신앙과 함께 이동해 왔다면 고인들의 전파도 거석숭배신앙과 함께 전파되어 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동남아시아-한반도의 해안지역 지석묘 분포와 난생신화(卵生神話)의 지리적 분포가 일치한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²⁷⁾ 그러나 남방지역에 고인돌이 50여기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형태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인들의 기원을 그곳과 관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자생설(自生說)은 우리나라에 고인들이 가장 밀집 분포되어 있고, 형식도 다양하며, 주변의 고인돌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의 황기덕은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주변보다

26) 도유호(1959) 「조선거석문화연구」, 『문화유산 59-2』

27) 김병모(1981) 「한국 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1)」, 『한국고고학보10:11』

밀집되었고 연대가 이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⁸⁾ 북한의 석광준은 석관묘(石棺墓)에서 고인돌이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석관묘의 주변 토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실되자 석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크고 무거운 덮개돌을 석관에 올려놓게 되면서 나중에 침존1유형이라는 고인돌이 출현하였다고 주장한다.²⁹⁾

남한의 학자들 가운데 김원룡(金元龍)은 시베리아의 석관묘가 한반도 서북부에서 고인돌로 발전한 것이라 보았다.³⁰⁾ 하문식은 농경으로 인한 잉여생산증가가 인구 증가를 가져오고 고인돌이라는 묘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³¹⁾ 이형구는 B.C.2000년경 발해연안에서 발생한 석관묘·적석총·고인돌·갑골같은 고대문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³²⁾

우리나라 고인돌이 발해나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하였다는 견해에서 그치지 않는다. 변광현(邊光賢)은 한반도 황주와 사리원 일대에서 고인돌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요동지방과 한반도 남해안 지방으로 퍼지면서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해안지방을 거쳐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³³⁾ 이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지 않다. 청동기 문명이 시베리아나 극동 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핀란드, 덴마크 학자들의 주장도 많이 있으며,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 고인돌도 고조선 영역인 발해나 한반도에서 기원하여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

28) 황기덕(1965) 「무덤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사회관계」. 『고고민속』 4

29) 석광준(1979) 「우리나라 서북지방 고인돌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7

30) 김원룡(1986) 『한국고고학개설』. p.92

31) 하문식(河文植) (1985) 『우리나라 고인돌문화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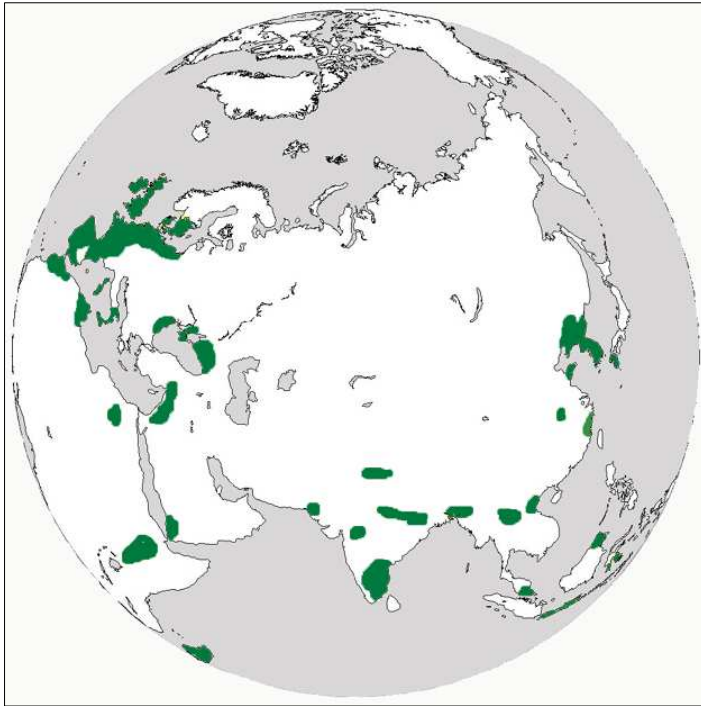
32) 이형구(李亨求) (1991) 『한국고대문화의 기원』. 도서출판 까치. p.83~137

33) 변광현(邊光賢) (2000) 『고인돌과 거석문화-동아시아』. 도서출판 미리내.

직은 가설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고고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토대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고인들의 분포

고인돌은 거석문화(巨石文化)의 한 형태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남미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그림 4-1) 세계의 고인돌 분포도³⁴⁾

세계에서 가장 고인돌이 많이 분포한 지역은 동북아시아이고 그중에서 한반도에 세계의 절반이상이 있다. 유태용은 전라도 지역에서 조사된 지식묘는 모두 20,718기로 한반도 최대 밀집 지역이면서 세계 최대의 밀집지

34) 변광현(邊光賢) (1998-12-01) 원시예술 홈페이지 내
<http://myhome.shinbiro.com/~kbyon/culture/kkoremap.htm>

역이라고 한다.³⁵⁾ 북한의 석광준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 일대에 분포된 고인돌은 14,000여기로 분포 밀도가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³⁶⁾ 위의 두 지역 고인돌 숫자 합계만도 35,000여 기에 이르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고인돌 수는 50,000여기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와 흑산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에도 수많은 고인돌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 한반도 내 고인돌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고인돌이 많이 분포한 지역은 중국의 산둥반도, 요녕과 길림지방, 일본의 북구주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림 4-2) 동아시아의 고인돌 분포도³⁷⁾

동북아의 고인돌 분포는 동이족(東夷族)이 거주했던 지역과 비교적 일치

35) 유태용(俞泰勇) (2003). 『한국 지식묘 연구』. 주류성 p.111

36) 석광준(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도서출판 중심. p.19

37) 변광현(邊光賢) (1998-12-01) 원시예술 홈페이지 내

<http://myhome.shinbiro.com/~kbyon/culture/kkoremap.htm>

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고인돌은 동이족의 문화적 활동에 의한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의 지석묘는 주로 큰 강 유역의 충적대지, 낮은 야산의 산마루나 산기슭, 또는 산과 산 사이에 형성된 분지성 저평야지대 등지에 밀집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밀집지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하였다.³⁸⁾

북한의 석광준은 다음과 같이 고인돌 무덤의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고인돌무덤 분포관계에서 무덤의 방향에 대해서도 스쳐 지날 수 없다. 무덤 방향은 지형조건과 립지조건에 따라 각이하다. 무덤이 있는 지형과 립지가 어떻든지 간에 무덤의 방향을 정하는 데서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고인돌무덤 방향이 모두 무덤이 놓인 골짜기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실례로 방향이 서로 다른 남쪽과 북쪽에서 황주천 본류로 흘러드는 연탄군 일대의 강 하천 류역의 고인돌무덤은 거의 전부 지류의 흐름 방향에 따라 문은 앞이 트인 방향에 있다. 고인돌무덤이 많이 발굴된 오덕지구에서 보면 평촌, 송신동, 원산동, 금교동 등의 고인돌무덤떼는 앞을 바라보기 좋은 골짜기 방향에 따라 돌관이 남쪽 방향으로 놓였고 석장골 도동, 두무동고인돌 무덤떼는 레외없이 황주천의 흐름에 따라 서쪽 방향으로 놓였다. 강동군 송석리 고인돌무덤떼는 레외 없이 송석천의 흐름 방향에 따라 모두 서쪽으로 문들이 있다 하지만 단독으로 높은 릉선 위에 우뚝 서 있는 은률군 관산리 고인돌무덤과 숙천군 평산리 고인돌무덤은 환히 트인 조선서해의 일망무제한 벌을 바라보며 무덤문이 서쪽에 놓였다.

이와 같이 고인돌무덤은 자리잡음이 각이한 지형에 있지만 앞을 보기 좋은 방향에 문들이 있다. 이것은 벌써 고인돌무덤 축조자들이 지형에 대

38) 유태용(俞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112

한 이해에 기초하여 방위를 정확히 가릴 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⁹⁾

풍수지리와 관련이 없는 학자들의 관점에서도 고인들의 입지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다. 유태용은 고인들이 주로 명당지역인 낮은 지역에 위치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석광준은 고인들의 방향이 산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며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를 가진 곳에 축조되었음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4. 고인들의 축조연대

고인들의 축조시기에 대하여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타난다. 처음 축조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하여는 신석기시대설과 청동기시대설로 양분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타제석기(打製石器)와 빗살무늬토기, 그리고 B.C. 20세기까지 올라가는 방사선탄소연대가 산출되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절대 다수가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며, 신석기시대 자료들은 고인돌 축조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므로 대다수 학자들은 고인돌을 청동기시대의 중심적인 묘제(墓制)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알면 고인들의 처음 축조시기가 언제인가를 알게 되지만 학설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이 현실이다.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에는 독자적인 청동기시대가 없었고 단기간의 금석병용기가 있었다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학자
- 기원전 400년 : 1960~1970년대까지 한국의 학자들 대부분이 한국의

39) 석광준(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도서출판 중심. p.21~22

청동기시대가 기원전 4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

- 기원전 700~800년 : 김원용
- 기원전 1000년 : 김정학, 임병태, 송호정
- 기원전 12세기 : 이종욱
- 기원전 1300년 : 김정배, 최성락
- 기원전 2500~2600년 : 윤내현
- 기원전 4000년 :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⁴⁰⁾

이렇게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에 대한 학설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절대 연대가 B.C. 20세기가 넘는 유물이 고인돌에서 발견되어도 이를 청동기시대 유물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명이 중동지역 → 지중해지역 → 유럽 → 우랄산맥 → 시베리아 → 요동지방 → 한반도로 전파되었다고 믿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청동기시대보다 앞선 연대가 한반도나 요동지방에서 나올 수 없다.

스웨덴의 몬텔리우스(G.O.A. Montelius)는 소아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청동기가 유럽과 남아시아로 전파되고 시베리아와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청동기의 오리엔트 기원설을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핀란드의 아스페링(J.R. Aspering)은 황금과 동 등 광물이 풍부한 러시아의 예니세이 강 상류 알타이 산 일대에서 발생한 청동기 문명이 훈족계 이주민에 의해 우랄지방으로 전파되고, 우랄지방에 전파된 청동기가 다시 북유럽의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고 보았다.

덴마크의 와르셰(J.A. Warsha)도 청동기가 중국을 비롯한 극동지역에서 나타나 알타이와 우랄산맥을 거쳐 북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학설을 폈다. 이는 유럽과 시베리아 일원에서 진행된 청동기 발굴 결과를 기초로 한 것

40) 성삼재(2005).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p.41

이다.⁴¹⁾

청동기문명이 유럽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나 극동지방에서 발생해서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것이 학문적 타당성을 입증받는다면 청동기시대의 묘제인 고인돌도 극동지역인 요동이나 요서, 한반도에서 유래되어 전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가설이 정식으로 이론화 될 것이다.

유물의 절대연대(絶代年代)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C_{14} 탄소연대측정법, 열형광법, 아미노산정량법, 핵분열법(FT), 전자상자성공명법(ESR) 등 10여가지가 있다. 남한에서는 주로 C_{14} 탄소연대측정법이 사용되고 북한에서는 단군릉 발굴이후 전자상자성공명법(ESR)이나 핵분열법(FT) 등으로 측정한 절대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남한지역에서 측정된 절대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은 양평군 양수리 고인돌로서 방사선탄소(放射線炭素)로 측정된 연대가 3900 ± 200 B.P.로 보정 연대가 B.C. 20세기까지 소급되고 있다.⁴²⁾ 이를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는 기존의 학설에 집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학자들은 평양 일대에서 발굴된 고인돌을 발굴지역의 명칭을 따서 침촌형, 오덕형, 묵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생긴 형식이 침촌형이라고 주장하며, 평양의 단군릉 발굴이후 절대연대가 상향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고인돌 무덤에 대한 편년표를 작성한 것은 다음과 같다.

기원전 4000년기 후반기	기원전 3000년기 전반기	기원전 3000년기 후반기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	-------------------	-------------------	-------------------

41)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출판사

42) 유태용(俞泰勇) (2003). 『한국 지식묘 연구』. 주류성 p.129

		오덕형 1형식		오덕형 2형식	오덕형 3형식
침촌형 1형식	침촌형 2형식	침촌형 3형식	침촌형 4형식		
		목방형 1형식		목방형 2형식	목방형 3형식

(표 4-1) 평양일대 고인돌 무덤 편년표⁴³⁾

5. 고조선(古朝鮮)과 고인돌

고조선(古朝鮮)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고 단군(檀君)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국정 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고조선의 건국시기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청동기(靑銅器) 시대에 이르러 성립된다는 것이 통설(通說)인데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보다 1,300년이나 앞선 시기는 신석기(新石器) 시대이고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군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신화(神話), 즉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청동기 문명이 외부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유물의 지속적인 발굴과 과학적인 연대 측정으로 남한지역에서 기존의 학설을 뛰어넘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2001년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강릉 교동 주거지 1호를 조사한 결과 교정연대가 기원전 1878~1521년이고 2호 및 3호 주거지도 중심연대가 기원전 15세기 무렵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연대는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설립시기도 당연히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43) 석광준(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도서출판 중심. p.231~248 참조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고인돌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한 상한 연대가 기원전 24세기 이전이라면 고조선과 단군의 기록이 신화가 아닌 역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993년 10월 북한은 단군릉으로 알려진 평양시 강동군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이 무덤에서 두 사람의 뼈와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사람 뼈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1993년을 기준으로 5011 ± 267 년으로 측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대 물리학의 첨단 기술 중의 하나인 전자상자성공명 연대 측정법으로 단군릉에서 나온 뼈의 절대년대를 측정하였다. (중략)

단군유골의 절대년대를 계산한 데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011 플러스 마이너스 267년 전이다. 시대오차는 5.4%이다. 단군 뼈에 대한 절대년대측정은 6개월 기간에 54번 측정하였는데 ~44)

평양의 단군릉은 고인돌 형식이 아니다. 또한 남한의 학자들은 북한의 단군릉에서 발굴된 인골의 연대 측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학자들은 단군릉 발굴이후 청동기시대의 연대가 대폭 상향되자 기존의 기원전 20세기 전반으로 추정하던 고인돌의 연대를 기원전 40세기 후반기 연대로 크게 소급하였다.

고인돌의 축조시기가 언제부터인가에 따라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언제부터인가가 달라지고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신화인지 역사인지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4) 김교경 (1995) 「단군릉에서 나온 사람 뼈에 대한 연대 측정 결과」. 『단군과 고조선연구』 살림터

제2절 고인돌 築造 過程

고인돌은 아무리 작고 간단한 것이라도 한두 사람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규모의 개석식 고인돌도 덮개돌 하나의 무게가 7~10톤이 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덮개돌을 암반에서 떼어내는 것과 그것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노동량이 투입되어야 했고 숙련된 석공기술자의 노력, 축조과정에서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고인돌 축조 전체 공정을 다루는 리더쉽도 요구된다.

1. 암석의 종류

고인돌에 사용된 암석의 재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암석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중국 요녕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화강암(花崗巖)이고 길림지역은 화강암과 각력암(角礫巖)·사암(砂巖)이 많으며, 한반도 북부지역은 화강암이 많으며 석회암(石灰巖)·점판암(粘板巖)·편마암(片麻巖)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도 화강암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편마암(片麻巖)·사암(砂巖)·규암(珪巖) 등의 여러 가지 암질이 사용되었다. 한편 제주도 고인돌에 사용된 암석은 현무암(玄武巖)인데 이는 제주도 지질이 현무암이기 때문이다.

2. 암석의 채집

고인돌이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덮개돌을 채굴해낸 채석장(採石場)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수십 톤이나 되는 덮개돌을 채굴(採掘)하여 멀리 운반하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채석장 근처에 바로 고인돌이 자리한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500여 미터, 멀리는 10km이상 떨어진 곳에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암벽에서 덮개돌을 떼어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암석 중 편마암 종류는 편리면(片理面)을 따라 쪼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한용결은 암석의 채취를 편리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여기에 물을 부어 얼음이 얼 때 발생하는 팽창압(膨脹壓)을 이용하거나 나무썰기를 박고 물을 채워 나무가 팽창하는 압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⁴⁵⁾ 이상균(李相均)은 6가지 암석 채굴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암석을 직접 타격하거나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썰기를 넣고 타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⁴⁶⁾

고인돌을 축조할 당시는 철기문화가 시작되기 이전이므로 돌의 채집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암석의 강도나 편리 같은 석질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고인돌이 축조되었을 시기에 이미 직업의 전문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⁷⁾

3. 석재(石材)의 운반

고인돌은 채석장 주변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채석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수십에서 수백 톤에 이르는 덮개돌을 운반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된다. 손진태는 운반방법으로 지렛대식, 목도식, 끌기식 등을 제안하였다.⁴⁸⁾ 지렛대식은 대형 석재 아래에 나무를 넣어 옮기는 방식이고, 목도식은 커다란 석재를 묶어서 사람들이 메고 옮기는 방법이며, 끌기식은 대형 석재 밑에 통나무를 깔고 석재는 묶어서 끄는 방법

45) 한용결 (1995) 「고인돌무덤 건축에 사역된 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단군과 고조선연구』 살림터

46) 이상균 (2000) 「고창지석묘군 상석 채굴지의 제문제」 『한국상고사학보』 32

47) 유태용(兪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159~160

48) 손진태(孫晉泰) (1948) 「조선 돌멘에 관한 조사연구」 『조선민족문화연구』

이다. 이외에도 눈이나 미끄러운 얼음을 이용하거나, 하천과 가까운 경우 뗏목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석재의 운반에는 무게에 따라 동원되는 인력이 달라진다. 동서양의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석재의 운반 방법과 투입되는 노동력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영국의 스톤헨지·이스터섬의 석상 등을 운반하는 데 요구되는 인력을 측정하였는데, 지형이나 석괴의 모양 및 운반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인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개 1톤당 6~21명의 인력이 요구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1톤당 10명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 운반을 전남 진도에서 재현한 실험 결과가 있다. 최성락과 한성욱이 실시한 실험으로, 6.8톤의 덮개돌과 이동로가 준비된 상태에서 돌 밑에 통나무를 깔고 옮기는 방법으로 60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 통나무를 옮겨 깔거나 운반을 지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총 73명이 요구되었다.⁴⁹⁾ 이 실험에서도 석재의 운반에는 1톤당 약 10.7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소규모 고인돌의 덮개돌 무게는 7톤인데 이를 운반하는 데 70명 정도의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화도 부근리 317호 덮개돌의 무게는 79.1톤⁵⁰⁾이므로 대략 790명 내외의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인돌에서 발굴되는 인골과 무덤의 규모를 보면 고인돌은 사회 성원이 모두 묻히는 집단 무덤이 아니라 개인 무덤이다. 따라서 고인돌은 평범한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인돌 무덤에 묻힐 피장자(被葬者)가 거대한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정치력과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고인돌은 족장(族長)을 포함한 지배 상층계급의 무덤으로 인식되고 있다.

49) 최성락·한성욱 (1989) 「支石墓 復元의 一例」 『全南文化財』 2, p.11~24

50) 우장문 (2005)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연구」 p.104

4. 고인돌의 축조

운반된 덮개돌을 가지고 고인돌을 완성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궂돌을 구한 뒤 미리 판 구덩이에 넣는다. 궂돌이 흔들리지 않게 작은 돌로 옆을 가득 채워 튼튼하게 다진다. 이 때 궂돌의 윗부분을 덮개돌 고조에 맞추어 다듬는 작업도 필요하다. 덮개돌의 모양에 따라 궂돌의 높이를 다르게 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궂돌이 파묻힐 만큼 흙을 덮어서 작은 언덕을 만든다. 이 언덕의 경사에 따라 둥근 나무를 깔고 덮개돌을 끌어올린다. 덮개돌의 형태가 네모반듯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은 궂돌에서 많이 내보내지 않고 반대쪽을 궂돌에서 더 내보내는 방식으로 전체 무게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다음 궂돌 끝부분까지 쌓았던 흙을 치우면 고인돌이 완성되는 것이다.

북한의 석광준은 평양 일대 대형고인돌 무덤에서 나타난 높은 치석술과 조립형식, 중력 균형 등에 있어서 고인돌 축조자들의 높은 건축술을 극찬하고 있다. 궂돌과 덮개돌·막음돌로 튼튼히 결합된 구조와 궂돌이 안쪽으로 약간 기울도록 조성한 점, 궂돌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 판 기초 홈과 뼈곡히 다져 넣은 켜기돌, 덮개돌과 맞물리는 궂돌의 윗 부분을 칼등처럼 얇게 다듬어 고여 놓은 것 등 건축역학적 계산과 여러 가지 공법들이 고인돌 건축에 능숙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고인돌이 축조될 당시 이미 구조역학이며 삼각법, 상사론의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⁵¹⁾

5. 고인돌의 종교의례적 성격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고인돌의 목적은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인돌은 피장자(被葬者)의 신분을 나타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후손

51) 석광준(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도서출판 중심. p.295~305

들의 복지를 위한 상징적인 조형물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도 화려한 무덤이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살아있는 자의 복리를 위한 역할을 더 많이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인들의 축조는 주거지에서 비교적 전망이 좋은 구릉이나 마을 어귀에 조성된다. 이렇게 축조된 고인들은 후손들에 의해 단순한 무덤뿐만이 아니라 피장자가 생전에 누렸던 사회적 위치가 자손들의 세대에서도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고인돌 자체를 신성(神聖)시하고, 주변에 묘역을 조성하고 종교적 의례를 행하면서 이념적 개념을 부여받는다.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활동은 덮개돌에 파진 성혈(性穴, cup mark)⁵²⁾, 덮개돌이나 꺾임돌에 새겨진 암각화(岩刻畵),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석검이나 석촉, 비파형동검이나 청동촉, 붉은 흙이나 홍도(紅陶)⁵³⁾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한반도의 고인돌은 족장사회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족장이나 그와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을 신격화함으로써 자손들의 권위를 보장받고자하는 이념적 측면에서 축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대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고인돌을 축조하고, 자연스럽게 정치적 권력을 확대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⁴⁾

이러한 개념은 현재 우리가 조상을 좋은 자리에 안장하여 시신을 편안하게 모시고, 또 이를 통해 발복(發福)하여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풍수지리의 목적과도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제4절 동북아 고인들의 입지조건

52) 북한의 학자들은 성혈이 별자리를 나타낸다고 압도적으로 주장한다.

53) 붉은 색은 생명의 영원성을 지닌 것으로 고인돌에 묻힌 사람이 재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54) 유태용(俞泰勇) (2003). 『한국 지식묘 연구』. 주류성 p.379~380

동북아의 고인돌은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산맥이나 강의 흐름 등과 관련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숭배사상(自然崇拜思想)과 함께 고인돌 축조집단의 중요한 의식적 요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⁵⁵⁾

유태용은 고인돌이 강이나 하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은 도작농경(稻作農耕)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작농경은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된다. 따라서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에게 물은 생명이며 삶의 원천이었으며, 고인돌의 방향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다.⁵⁶⁾

이와 같이 동북아 고인돌은 지세(地勢) 및 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축조되었으며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숭배사상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풍수지리 사상과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1. 요녕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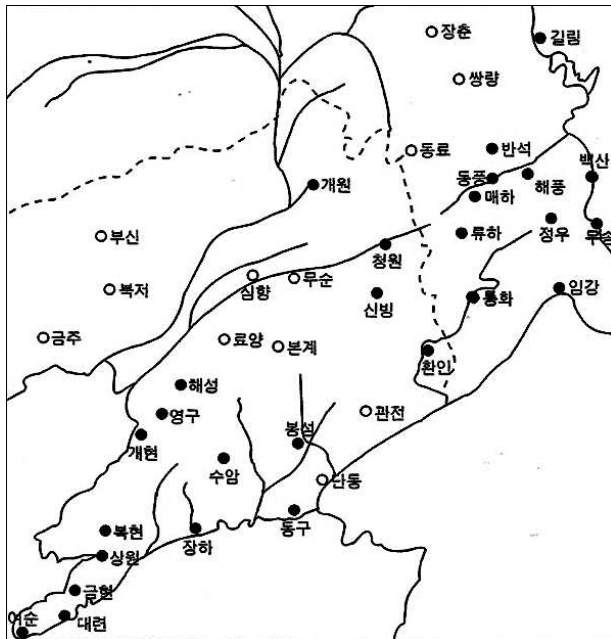
요녕지방의 고인돌들은 주로 높지 않은 작은 산마루나 산기슭에서 아래의 평야가 내려다 보이고, 산 아래에는 평지와 하천이 흐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대석교시(大石橋市) 석봉(石棚)곡 고인돌은 석봉산(石棚山)의 북쪽 산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산기슭에 위치하는 경우 중턱 부근에 약간의 평지에 고인돌이 세워져 있는 데 앞으로는 하천과 평지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에 세워진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지에 근접한 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경우도 있다.⁵⁷⁾ 이 지역의 고인돌은 상징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주변의 전망이 좋은 산마루나 산 중턱의 평평한 곳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풍수지리 입장에서는 산마루나 산 중턱에 명당

55) 지건길(池健吉) (1980) 「支石墓社會의 復元에 관한 一研究」 『梨花史學研究』 13·14집, p.4~5

56) 유태용(兪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357~358

57) 앞의 책 p.428~429 참조

이 위치할 가능성은 적지만 가급적이면 바위가 풍화되어 단단한 흙으로
 변한 곳을 골라 고인돌 터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림 4-3) 요동지방 고인돌 분포도⁵⁸⁾

2. 한반도 북부지역

한반도 북부지역의 고인돌은 해발이 낮은 산의 정상부에 대지를 조성하고 세우거나, 요녕이나 길림 지방에서와 같이 산 중턱에서 돌출되면서 생긴 대지, 또는 하천의 주변 지역에 형성된 평평한 대지에 세워지고 있다. 황해도 은율군 관산리 지석묘는 해발 80m의 낮은 산마루에 우뚝하게 세워져 있는데 동쪽과 북쪽은 구월산 줄기로 첩첩히 막혀있고 서쪽으로는 서해로 트여 있으며 세워진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경우 앞마을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고인돌은 산마루나

58) 석광준(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도서출판 중심. p.134

산기슭보다는 하천 유역의 평탄한 대지에 세워지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북부지역의 고인돌도 산과 하천 같은 자연지세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축조되고 있는 것이다.⁵⁹⁾

한반도 북부지역의 고인돌이 하천 유역의 평탄한 대지 위에 세워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지역에 세워지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인돌을 세운 사람들의 주거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종교적 활동과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고인돌 주변에서 당시의 주거지가 발굴되고 있다.

3. 한반도 중서부지역

한반도 중서부 지역의 고인돌은 산마루보다는 산기슭·구릉지·고개마루·평지 등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⁶⁰⁾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고인돌은 계수동 안골마을의 논과 서쪽 야산으로 이어지는 밭(해발 20m)에 위치하고 있다. 뒤편에는 낮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으며, 전방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다. 고인돌의 장축 방향은 안골 마을 앞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개천 방향과 일치한다.

광명시 가학동 고인돌은 터골산과 북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야산을 연결하는 구릉의 정상부에 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군 다율리와 당하리 고인돌은 해발 약 45m의 낮은 구릉에 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는 100여기 이상 무리를 지어 군집하였다고 한다.

중서부지역의 고인돌은 북부지역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북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변 자연 지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자리하였는데, 거의 예외없이 능선의 방향과 능선의 중심에 맞추어 고인돌이 위치하였다.

59) 유태용(兪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429 참조

60) 앞의 책 p.430 참조

4. 한반도 남부지역

남부지역의 고인돌도 산마루·산기슭·구릉지·고개마루·분지성 평지·해안가 주변, 또는 소하천변의 충적토위에 형성된 평지 등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산마루나 산기슭보다는 평지나 고개마루, 또는 두 개의 나지막한 야산 사이에 형성된 평지에 축조되는 경향이 있다.⁶¹⁾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리나 상촌리 고인돌들은 남강유역에 형성된 충적대지 위에 주거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워졌다. 경상남도 창원시 덕천리 고인돌도 산과 덕천천 사이에 형성된 충적대지에서 산과 저지대 소택지가 만나는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에서 300m 떨어진 언덕에서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조밀한 고인돌의 분포지역으로 그 수는 대략 2,000여기가 된다. 이중에서도 죽림리, 상갑리 일대가 가장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죽림리 매산 마을은 화실봉(해발400m)의 봉우리로부터 서남을 향하여 활 모양으로 뻗어 내리는 산맥을 배경으로 하고 앞에는 주진강 상류인 고창천이 가로 흐르고 있으며, 마을 뒷산은 말안장 모양의 지형으로 그 서쪽에는 섬틀봉(해발150.3m)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대부분의 고인돌은 죽림리 매산 마을을 기점으로 동서에 걸쳐 산줄기의 남쪽 기슭을 따라 해발 15~50m의 범위 내에 군을 이루며 등고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죽림리 지역의 경우 해발 60m를 기점으로 경사도가 크게 증가하는 데, 이 일대 고인돌군은 주로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림과 농지사이의 경계선상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산본 고인돌은 산기슭 아래 완만한 경사면 끝부분에 산줄기 방향으로 21기가 자리하고 있다. 여수시 오림동 고인돌은 계곡 평지에 10여 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길이 410cm, 폭 276cm인

61) 유태용(俞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430~431 참조

5호 고인돌의 덮개돌 옆면에서는 인물상과 동물상을 새긴 그림이 발견되었다. 그 중 간돌칼을 중앙에 놓고 왼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무언가를 바치는 인물상과 그 옆에 서 있는 인물상이 주목된다. 이는 죽은자와 묘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조상 숭배 사상에 따른 장례 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돌칼과 인물상이 고인돌에 새겨진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예이며, 이러한 그림은 고인돌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사회상과 신앙을 연구하는데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동북아 고인돌의 입지조건은 산마루·산기슭·구릉지·고개마루·분지성·평지·해안가 주변, 또는 소하천변의 충적토위에 형성된 평지 등이다. 요녕지방과 같이 북부지역은 높지 않은 산마루·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산과 평지가 만나는 명당(明堂)권역에 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장문은 경기지역과 다른 지역의 고인돌 위치를 구릉 및 산 능선과 평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지역 위치	경기 지역	서북한	금강	전남 서해안	영산강	전남 남해안	보성강
구릉 및 산 능선	74%	84%	64%	68%	54%	57%	48%
평지	26%	16%	36%	32%	46%	43%	52%

(표 4-2) 경기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고인돌 위치 비교⁶²⁾

위의 표에서와 같이 서북한 지역의 고인돌은 구릉 및 산 능선에 주로 위치하였고, 경기지역도 평지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3/4 가량이 구릉 및 산 능선에 축조되었다.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서 평지에 분포하는 고인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산지가 많은 북쪽과 평야가 많은 남

62) 우장문 (2005)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연구」 p.276 참조

쪽의 자연환경의 차이가 고인돌의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모두의 공통점은 고인돌이 주변 자연 지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자리하였다는 점인데, 능선의 방향과 능선의 중심에 맞추어 고인돌이 위치하였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맥(龍脈) 상에 고인돌이 축조되었음을 나타낸다.

제5장 강화도 고인돌의 立地條件

제1절 지리적 분포와 입지조건

강화도는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한강의 관문으로 우리나라 섬들 중에서 5번째로 큰 섬으로,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서북부 및 요동반도 일대와 근접하여 문화접촉이 용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강화의 지리적 형성은 원래 백두대간의 보은 속리산에서 분맥한 한남정맥이 북서쪽으로 올라와 김포 문수산에서 강화해협을 도수협(渡水峽)하여 이루어진 섬이다. 한남정맥의 끝자락 마리산(마니산, 469.4m)은 그래서 기가 가장 세게 뭉친 산이라고 한다. 김포반도와 이어진 내륙이었으나 오랜 세월동안 침식으로 인하여 고려산·혈구산·마니산 등 여러 개의 구릉성 도서로 분리되었다. 그 후 한강과 임진강의 퇴적작용으로 다시 김포반도와 연결되었으나 염하(鹽河)가 한강에서 분류되어 반도와 연결된 부분을 침식, 유로(流路)를 형성하여 강화는 섬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강화도는 남북의 길이 28km, 동서 16km로 해안선의 길이가 112km인 타원형으로 총면적이 293km²이다. 지질은 약 80%가 경기편마암복합체 중에서도 화강편마암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흑운모편마암·석영편마암·장석편마암 등으로 분류된다.

지형은 산악이 많으나 대체로 노년기 지형으로 산의 아래에 이를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해안지대에는 30~40m 고도의 완경사면이 구릉으로 나타나는데 취락 입지와 경작지로 이용된다. 구릉지의 취락입지는 홍수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게 하며, 농업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1. 강화 고인들의 지리적 분포

강화도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의 남쪽에 위치하며, 조강의 한줄기는 남쪽의 염하로 흐르고 다른 한줄기는 서쪽으로 흐른다. 예성강과 합류하여 교동도 서쪽을 지나 서해로 빠진다. 따라서 경기만의 한 가운데 위치한 강화도는 해수와 담수의 교차, 얕은 수심, 심한 조수 간만(潮水干滿)의 차이 등으로 간석지(干潟地)가 발달하여 어류와 패류가 풍부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⁶³⁾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진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주거 및 어로, 채집, 농경활동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반도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바둑판식과 개석식 고인들이 많이 분포하는 반면에 북쪽에는 탁자식 고인들이 많은데, 강화도에는 총 165기의 고인돌 중에서 탁자식⁶⁴⁾(81기)과 개석식⁶⁵⁾(78기)의 비율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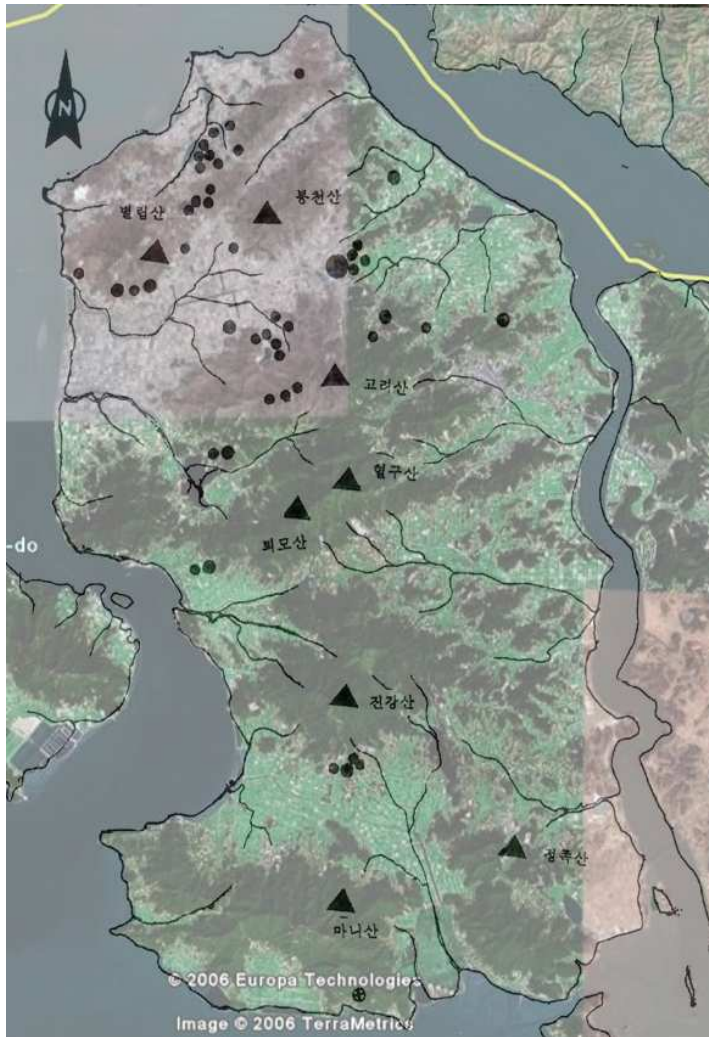
강화도 고인돌은 대부분 섬의 북쪽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먼저 고려산 북쪽부분에 밀집된 고인돌 군을 볼 수 있는데 고려산과 봉천산 사이 평야지대를 바라보며 세워졌고, 고려산과 별립산 사이 평야를 바라보며 고려산 산자락과 별립산 산자락에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지역의 고인돌 수는 총 110기이다.

63) 김석훈 (2000) 「강화도의 선사문화」 『博物館誌』 p.74 ~ 76

64) 탁자식 고인돌은 일명 북방식(北方式) 고인돌(支石墓)로 불리는 형식으로 탁자(卓子) 또는 탁상(卓床) 모양으로 고인들의 대표적인 전형(典型)이다.

65) 개석식(蓋石式) 고인돌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고인돌로서, 땅 속에 무덤방을 만들고, 무덤방 뚜껑으로 커다란 돌만 올려져있는 고인돌을 말한다.

66) 유태용(俞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413



(그림 5-1) 강화도 고인들의 분포⁶⁷⁾

또한 별립산에서 길게 산맥이 뻗어내려 별악봉까지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 이 산악지대 북쪽 경사면과 야산 능선을 따라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총 32기가 있다.

퇴모산 서남쪽과 진강산 남쪽에도 평야와 만나는 지점에 총 7기의 고인

67) 유태용(俞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411

배경 Google Earth 위성사진©2006 Europa Technologies.

돌이 발견되었다.

풍수지리 입장에서 강화도 고인돌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산의 앞쪽에 주로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산 북쪽은 평야와 만나는 완만한 경사를 지닌 쪽이며 산의 앞면에 해당된다. 별립산에서 시작된 산악지대 북쪽에 위치한 고인돌 군의 입지조건도 평평한 대지와 만나는 앞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산의 면	고인돌 수	비율	해당지역(고인돌 수)
앞면	126	76.36%	교산리(32), 삼거리(30), 부근리(28), 하도리(13) 상도리(5), 이강리(3), 북성리(3), 어두(6) 장정리(2), 신삼리(1), 양오리(1), 대산리(1) 외포리(1)
뒷면	39	23.64%	고천리(20), 오상리(13), 창후리(4), 신봉리(1) 동막리(1)
합계	165	100%	

(표 5-1) 강화도 고인돌 분포현황

고려산 남쪽 정상부근에 입지한 고천리 고인돌군, 고려산 낙조봉 남쪽의 오상리 고인돌군이 주산의 뒷면에 자리한 고인돌이며 전체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고천리 고인돌은 고려산 북쪽 평야지대의 거주 집단과 고려산 남쪽 고천리 오상리 일대의 거주 집단간의 경계의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⁶⁸⁾

2. 강화 고인돌의 입지조건

강화도 고인돌이 축조되는 입지조건을 산마루·산능선·산하사면(山下斜

68) 홍인국(2004) 「강화 북부지역 추장사회의 실체」 p.11

面)·평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하사면(山下斜面)은 산의 능선이 뺀어 내려와 평지와 만나기전 두둑한 부분으로 풍수지리에서 명당권이라 부르는 지역이다. 강화도 고인들의 입지조건을 지세(地勢)에 따라 살펴보면 산하사면에 입지한 고인들이 모두 101기로 전체의 61.21%에 달한다. 강화도에 있는 고인들의 절반 이상이 명당권에 위치한 것이다.

	산마루	산능선	산하사면	평지	합계
탁자식	16	17	43	5	81
개석식	7	14	53	4	78
기타	0	0	5	1	6
합계(%)	23(13.94)	31(18.79)	101(61.21)	10(6.06)	165

(표 5-2) 강화도 고인들의 형식과 입지조건⁶⁹⁾

이는 당시 주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삼거리 소등마을 고인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청동기시대의 팽이형토기가 출토되는 장방형 주거지가 발굴되었다.⁷⁰⁾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서 움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기운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농경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에 유리한 곳을 주거지로 삼았고, 부근에 고인돌을 축조하였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조상들이 경험한 대자연의 이치를 최대한 이용하여 더 좋은 조건을 지닌 터를 찾아서 주거지를 삼았고,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신 조상의 사후 거주지를 선택하였음을 말한다.

산마루나 산능선에 축조된 고인돌은 주변 지역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고인돌이 세워질 당시에 지세를 고려하여 앞이 넓게 트여져 있고 주변 경관이 빼어난 곳에 입지함으로써, 피장자의 영역적 관념과 사회적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산마루나 산능선에는 탁

69) 윤택용(兪泰勇)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pp.427 참조

70) 앞의 책 p.426

자식의 축조 비율이 산하사면이나 평지보다 높다. 주변 전망이 좋은 곳에 정교한 축조기술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큰 규모의 탁자식 고인돌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피장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아울러 후손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풍수지리 입장에서는 산마루나 능선 중간에 명당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괴혈(怪穴)에 해당하는 기룡혈(騎龍穴)은 높은 곳에도혈을 맺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의 산세가 높은 와중에 맺는 혈이다. 강화도와 같이 낮은 산세에서는 낮은 곳에혈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산마루나 능선 중간에 축조된 고인돌의 입지는 풍수지리상 명당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강화도 고인돌은 축조시 자연지리적인 조건이 우선시 되었는데, 산의 능선(용맥, 龍脈)을 따라 축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장문은 강화도 고인돌의 덮개돌 장축과 능선 방향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덮개돌이 남아 있어 능선의 방향과 비교가 가능한 경우(65기)는 다음과 같다.

능선과 장축의 방향	탁자식	개석식
수직	17	14
평행	26	6
기타	-	27 ⁷¹⁾

(표 5-3) 능선과 고인돌의 방향⁷²⁾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선의 방향과 덮개돌의 장축 방향은 수직 아니면 수평의 관계를 갖는다. 능선과 무덤방의 방향은 더 강한 관계를 갖는 데 직접 탐방한 부근리·삼거리·고천리·오상리 고인돌들은 무덤방의 방향과 능선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였고, 교산리 고인돌 중 별립산을 바라보

71) 산이나 구릉 정상

72) 우장문 (2005)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연구」 p.103 ~ 107 참조

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인들이 능선과 무덤방의 방위가 일치하였다.

강화도 고인들의 입지는 하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 (그림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하천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고인들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주거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넓은 평야가 시작되고 소하천을 가까이 둔 지역은 농경활동에 유리한 조건이었으며 주거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고인돌을 가급적이면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축조함으로써 지배계급의 권위를 과시하고자하는 측면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은 크게 땅(산 포함), 강(물), 바람 등 세 가지 자연조건의 조화와 안정과 균형에서 이루어진다.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의 맥이 내려오되 앞면이고 낮은 지역에서 적당한 물과 만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화도 고인들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인들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개별적인 현장조사,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강화도 고인돌은 대부분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화도 고인돌 대부분이 훌륭한 명당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이 쉽게 찾을 수도 없고 국토의 일부만 명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강화도 고인들의 입지를 풍수지리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강화도 고인돌 165기를 전부 조사하고 싶었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고인돌이 군집한 지역, 즉 부근리·오상리·삼거리·교산리·고천리 지역을 대상으로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별 고인들의 입지에서 산과 용, 혈과 사신사, 물과 바람을 조사하여 풍수지리 이론상 명당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1. 강화지석묘 (江華支石墓)



(그림 5-2) 강화지석묘(사적 제 137호)

현재 남한에서 탁자식 고인돌로서는 가장 거대한 이 고인돌은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위치하며 1964년 사적 137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서 전후 300m 이내에 이와 같은 탁자식 고인돌과 개석식 고인돌 무덤이 10여기 혼재하고 있다.⁷³⁾

강화지석묘는 커다란 덮개돌의 아래에 2개의 대형 받침돌이 받치고 있으며, 받침돌은 동남쪽으로 20° 가량 기울어져 있으며 덮개돌은 거의 수평으로 놓여져 있다. 덮개돌의 무게는 79.1톤으로 부정타원형 판석이며 석질은 흑운모 편마암(黑雲母 片麻岩)이다. 받침돌간 내부 너비는 140cm이고 고인돌의 최대 높이는 260cm이다.

1) 산과 용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분맥한 한남정맥이 북서쪽으로 올라와 김포 문수산에서 강화해협을 도수협(渡水峽)하여 고려산(436m)을 만들고 남으로는 혈구산(466m), 한남정맥의 끝자락 마니산(469.4m)까지 이어진다.

73) 이형구(李亨求) (2006). 『江華島 고인돌무덤 調査研究』. 춘추각 p.24 참조

고려산의 옛 명칭은 오련산(五蓮山)이다. 416년(고구려 장수왕 4)에 천축국의 조사가 이 산에 올라 다섯 색상의 연꽃이 피어 있는 오련지를 발견하였는데, 이 연꽃들을 하늘에 날려 이들이 떨어진 곳에 적련사(적석사)와 백련사·청련사·황련사·흑련사를 각각 세웠다고 한다. 고려가 강화로 천도하면서 송도의 고려산 이름을 따서 고려산(高麗山)으로 바뀌었다. 연개소문이 이곳 고려산 북쪽 봉우리인 시루메산에서 태어났으며 고려산 치마대에서 군사를 훈련시켰으며 오련지에서 말의 물을 먹여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고려산 정상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옛 모습을 가늠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형세로 보아 고려산은 오행산 중에서 목산(木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강화지석묘는 고려산 북쪽 봉우리인 시루메산에서 용맥(龍脈)이 뻗어 내리고 좌선(左旋)하여 앞의 자그마한 안산(案山)에 막혀 멈추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산의 앞면에 입지하였으며, 고인돌 주변이 공원화작업으로 정리되어 내룡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혈

용이 길게 뻗어 내려왔기 때문에 고인돌이 입지한 곳은 유혈(乳穴)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질은 암석이 박환(剝換)된 비석비토(非石非土) 형태이었으며 아주 단단하고 입자가 치밀하였다. 또한 수맥(水脈)을 측정한 결과 전혀 수맥이 없는 안정된 지반이었다. 따라서 이 고인돌의 궤돌이 20° 가량 기울어졌어도 수천 년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본다. 궤돌로 본 무덤방의 방위는 신좌인향(申坐寅向)⁷⁴⁾으로 용맥의 방향과 일치하였고 용맥의 가운데 입지하였다.

3) 사신사

74) 풍수지리에서 방위를 나타낼 때 24방위를 사용하며 1방위는 15°이다. 자(子)는 정북에 이후 癸 丑 艮 寅 甲 卯 乙 辰 巽 巳 丙 午 丁 未 坤 申 庚 酉 辛 戌 乾 亥 壬 로 나머지 방위를 표시한다. 이를 지반정침(地盤正針)이라 한다.

고인돌이 위치한 용맥은 현무봉에서 길게 뻗어 내려와 좌선(左旋)하여 안산(案山)에 막혀 멈추었기 때문에 주변에 내청룡, 내백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시루메산에서 같이 길게 뻗어 내려온 용맥이 외백호 형태를 하다가 우선(右旋)하여 안산을 만들었다. 고인돌에서 좌측은 평야지대로 청룡의 역할을 하는 사(砂)는 없었다.

4) 물과 바람

고인돌 앞에는 작은 실개천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득수(得水)는 하였지만 청룡이 없어서 물의 기운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형상이었다. 청룡이 없어서 북쪽에서 직사풍이 그대로 밀려오는 등 바람이 거센 곳에 입지하였다.

5) 기타

강화지석묘에서 서남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판석 하나가 20° 정도 동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세워져있다. 예전에는 은행나무 발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관광안내소와 휴게소가 들어서 있다. 지상에 남아있는 규모는 325 × 200 × 36cm로서 덮개돌과 함께 제대로 남아 있었을 때에는 강화지석묘에 버금가는 웅장한 고인돌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석질은 강화지석묘와 같이 흑운모 편마암(黑雲母 片麻岩)이며, 토질은 마찬가지로 비석비토(非石非土) 형태이었으며 아주 단단하고 입자가 치밀하였고 수맥(水脈)이 없는 안정된 지반이었다.



(그림 5-3) 부근리 15번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4호)

이 돌을 뽕돌이라고 한다면 무덤방의 방위는 미좌축향(未坐丑向)이며, 용맥이 좌선하는 지점에서 용맥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강화지석묘와 같은 용맥상에 위치하였지만 방위가 약간 다른 것은 용맥이 좌로 돌고 있는 지점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2. 부근리 (富近里) 점골 고인돌

고려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려온 주능선이 하점(河帖)평야와 만나는 끝 부근 해발 20m 고지에 대형 탁자식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방의 옛 이름은 그릇을 구웠던 가마가 있었다고 하여 ‘점골’이다.⁷⁵⁾

이 고인돌은 덮개돌과 4개의 뽕돌이 남아있는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이다. 동쪽 뽕돌과 북쪽 마구리돌이 쓰러져 있고 남쪽 마구리돌은 덮개돌 아래에 깔려 있다. 덮개돌 아래로 20~30cm의 돌무지가 깔려있다. 석질은 흑운모 편마암(黑雲母 片麻岩)이다. 2000년 12월 2일 강화지석묘 등과 함

75) 이형구(李亨求) (2006). 『江華島 고인돌무덤 調査研究』. 춘추각 p.25 참조

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5-4)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2호)

1) 산과 용

고려산에서 북쪽으로 용맥이 상하좌우로 진행하여 하점(河帖)평야와 만나는 끝 부근에 입지하고 있다. 산의 앞면이며, 용맥은 내룡의 변화가 많은 생룡(生龍)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

2) 혈

용이 비교적 길게 뻗어 내려왔기 때문에 고인돌이 입지한 곳은 유혈(乳穴)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질은 비석비토(非石非土) 형태이었으나 아주 단단한 형태는 아니었다. 무덤방 양 옆으로 수맥(水脈)이 있었는데 동쪽 뒀돌에 아주 가까이 수맥이 있어 이쪽 뒀돌이 무너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 진다. 고려산에서 내려온 용맥의 방향에 따라 오좌자향(午坐子向)으로 무덤방 방위를 결정하였다.

3) 사신사

고인돌 앞으로는 하점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안산(案山) 역할을 하는 사(砂)가 없으나, 무덤방에서 북동쪽으로 멀리 봉천산이 토산(土山) 형태로 보이며 조산(朝山) 역할을 한다. 왼쪽에 청룡(靑龍)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른쪽에 백호(白虎)가 있는 데 주룡(主龍)보다 짧아서 유정(有情)하게 감싸는 모습은 아니었다.

4) 물과 바람

고인돌이 입지한 용과 백호사이에 골이 있어 우천시 물이 흐르는 형태이다. 혈의 좌측에 작은 실개천이 용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지만 물은 하점평야로 곧바로 흘러내리는 형상이다. 안산과 청룡이 없기 때문에 직사풍이 그대로 혈장에 다다른 형상이다.

3. 하점면 삼거리(河帖面 三巨里) 샘말(泉村)부락 고인돌



(그림 5-5) 삼거리 샘말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5호)

고려산 서북쪽에서 뺨어 내린 능선에 따라 고인돌이 있다. 산 아래는 삼거리 샘말(三巨里 泉村)이 있으며 하점면 일대의 평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샘말에서 능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탁자식 고인돌이 5기(41~45번 76))가 해발 120m 부근에 군집하여 있고 위로도 능선이 내려오다 평평

해지는 곳에 4기(46~49번)가 해발 200m까지 있다. 이 능선에서 확인한 고인돌 대부분이 조그만 규모이었으며, 평지에 산재되어 있는 거대한 고인돌에 비하여 꺾돌의 모서리가 직각과 수평을 이루면서 거의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다. 석질은 화강 편마암내지는 흑운모 편마암이다.

1) 산과 용

고려산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용맥이 중간에 평지를 이루는 곳(41번 고인돌)과 10m 정도 평지진행 후 취돌하는 부분(42~45번 고인돌)에 입지하고 있다. 산의 앞면에 해당되고, 용맥은 상하진행형으로 힘차게 뻗어 내려오고 있었다.

2) 혈

용맥이 상하로 진행하다가 평지를 이루는 부근에 입지하였으나 용이 계속 진행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혈을 맺기는 어려운 곳에 입지하였다. 고인돌의 방향은 용맥의 방향에 따라 오좌자향(午坐子向)인 정북향으로 무덤방방위를 결정하였으며, 토질은 비석비토(非石非土) 형태이었고 고인돌이 입지한 자리에 수맥은 측정되지 않았다.

3) 사신사

용맥의 좌우로 능선이 같이 뻗어내려 오고 있어 청룡과 백호라고 할 수 있었으나 주용맥과 마찬가지로 상하 진행형이고 고인돌의 자리를 감싸 안는 형태가 아니었다. 멀리 봉천산과 별립산이 조산(朝山)역할을 하고 있었다.

4) 물과 바람

좌우 청백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물이 흐르고 왼쪽 아래에 삼거리 저수지가 있었다. 청룡과 백호가 물을 거스르는 형태가 아니라 물과

76) 강화군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이다. 이하 같음.

같이 아래로 흐르는 산수동거(山水同去)로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는 형태이다. 바람은 산의 중턱임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편이었으며 이는 청룡과 백호가 바람막이 기능 정도는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5) 기타

고인돌이 산마루나 능선 중간에 입지하는 경우 채석장이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삼거리 샘말 고인돌의 경우도 채석한 흔적이 있는 거대한 바위를 보게 되었다. 편마암의 속성상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기 쉬우며 (사진 5-7)에서 나타나듯이 암석의 약한 부분에 홈을 파다 중지한 흔적이 있었다. 그 틈새에 물을 부어 얼음이 얼 때 발생하는 팽창압(膨脹壓)을 이용하여 하거나 나무췌기를 박고 물을 채워 나무가 팽창하는 압력을 이용하여 암석을 절단하였을 것이다.



(그림 5-6) 삼거리 샘말 능선상의 채석장

샘말 부락에서 고인돌군으로 올라가는 능선 상에도 4기의 고인돌이 중간에 평지를 이루는 곳에 입지하고 있었다(52번, 125~127번 고인돌). 이곳의 고인돌들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수맥을 측정한 결과 모두 고인돌이 입지한 지반에 수맥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진 5-6)에서 나타나듯이 덮개돌위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 지반이 단단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꺾돌이 기울어지고 덮개돌이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능선 상에 입지하였어도 무덤방의 위치가 약간씩 다른 데(125번 坤坐艮向, 127번 申坐寅向), 이는 용맥이 상하좌우로 진행해 내려오는 방향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림 5-7) 삼거리 샘말 능선상의 고인돌

4. 양사면 교산리(兩寺面 橋山里) 고인돌

양사면은 강화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별립산 동쪽으로는 봉천산이 있고 교향천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25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데 별립산과 봉천산이 만나서 형성된 구릉의 능선에 따라 분포하는 12기와 구릉 하단과 평지에 분포하는 13기가 있다. 능선상에 분포하는 12기 중 5기는 해발 약 150m의 정상부에 있어 서해와 개풍지역까지 내려다 볼 수 있다. 교산리 가장 북쪽에는 약 10m 가량의 낮은 구릉에 7기가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 1~2기씩 구릉의 끝이나 평지에 위치한다.⁷⁷⁾

현장 조사한 고인돌 군은 별립산에서 길게 뻗어 내려온 동쪽 능선 해발 150m 부근에 있는 5기의 고인돌군(111~113번, 115번, 123번)⁷⁸⁾이다.

77) 우장문 (2005)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연구」 p.107~109 참조

78) 이 번호는 우장문 (2005)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연구」에서 사용된 번호를 편의상 사용하였다.



(그림 5-8) 교산리 산상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8호)

1) 산과 용

고인돌의 자리에서 바라본 별립산은 금산(金山)⁷⁹⁾의 형태이었다. 별립산 동쪽으로 뻗어 내린 용맥이 중간에 평지를 이루는 곳(112번, 113번, 115번, 123번)과 10m 정도 평지진행 후 취돌하는 부분(111번 고인돌)에 입지하고 있다. 교산리 111번은 산의 기운이 잠시 멎쳐서 작은 봉우리를 만드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바다와 북한의 개풍지역까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산의 앞면에 해당되고, 용맥은 상하좌우 진행형으로 힘차게 뻗어 내려오고 있었다.

79) 별립산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산의 형태가 달리 보였는데, 남쪽에서 보았을 때는 목산과 화산의 중간 형태이었고 고인돌자리에서는 금산의 형태이었다.

2) 혈

삼거리 샘말 고인돌과 같이 용맥이 상하로 진행하다가 평지를 이루는 부근에 입지하였으나 용이 계속 진행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혈을 맺기는 어려운 곳에 입지하였다. 토질은 비석비토(非石非土) 형태로 단단하고 치밀한 입자이었고 고인돌이 입지한 자리에 수맥은 측정되지 않았다. 평평한 곳에 놓인 4기(112번, 113번, 115번, 123번) 고인돌의 방향은 용맥의 방향에서 45° 틀어진 인좌신향(寅坐申向)의 방위를 갖는 데 용맥의 방향보다는 서쪽의 별립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산리 111번은 멀리 서해바다까지 내려다보이는 곳이지만 용맥의 방향에 맞추어 을좌신향(乙坐辛向)의 방위를 갖는다.

3) 사신사

현무에서 용맥이 힘차게 뻗어내려 오고 있지만 단독으로 내려오고 있어 청룡과 백호를 찾아보기 힘든 국면이었다. 북쪽으로 멀리 별립산의 다른 줄기가 내려와 조산(朝山)역할을 하고 있었다.

4) 물과 바람

용맥의 양 옆은 골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으로 보인다. 평지에 내려와서는 교향천이 북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청룡과 백호가 없고 안산 또한 찾아볼 수 없어 물도 쉽게 빠져 나가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자리에 입지하고 있다.

5. 내가면 오상리(內可面 鰲上里) 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는 고려산 남서쪽 지역과 고려지(高麗池)를 포함한 지역이다. 고려산에서 발원한 연천이 고려지에 모여 서해로 흐르고 고려산 서쪽으로는 해안성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강화도 고인돌은 주로 고려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상리 고인돌군은 고려산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인돌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어 서로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질은 흑운모 편마암(黑雲母 片麻岩)이다. 2000년 12월 2일 강화지석묘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5-9) 오상리 56번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16호)



(그림 5-10) 오상리 57~65번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7호)

1) 산과 용

고려산 정상에서 서쪽 낙조봉(343m)으로 이어진 용맥이 남쪽으로 상하 진행하면서 흘러내리다가 과맥(過脈)을 거쳐 작은 야산(해발 76m)을 형성한다. 오상리 고인돌군은 이 과맥처에 위치하고 있다. 즉 활처럼 완만하게 휘 능선 중간에 12기의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 자리에서는 낙

조봉의 뒷면을 바라다보게 된다.

2) 혈

오상리 고인돌군은 과맥(過脈)에 위치하고 있다. 과맥 주변에 탁산(托山)과 같은 보호사(保護砂)가 있어 에너지를 응축시키면 과맥이 좁아져 과협(過峽)을 이루게 되며 이를 속기(束氣)라고 한다. 속기가 이루어지면 다음엔 취기처(聚氣處), 즉 산의 기운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곳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이곳은 주변에 보호사가 없어 용맥이 넓게 지나가는 자리이다. 따라서 취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다만 56번 고인돌의 자리는 야산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기운이 모이는 취기처라고 할 수 있다. 과맥은 단지 산의 기운이 통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혈을 생성하기 힘들다.

56번 고인돌은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로 용맥의 중앙 맨 위쪽에 입지하고 있으며 용맥의 흐름과 직각방향인 사좌해향(巳座亥向)의 방위를 나타낸다. 이는 주변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에 탁자식 고인돌을 세워 피장자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축조되었다고 보여 진다. 고인돌 위치에서 앞쪽으로는 멀리 서해가 보이고 북동쪽으로는 고려산의 서쪽 면을 보게 된다. 56번 고인돌을 제외한 나머지 57~65번 고인돌들은 모두 용맥의 방향에 따라 무덤방이 곤좌간향(坤坐艮向) 방위로 배치되어 있다.

이곳의 토질은 암석이 박환(剝換)되어 비석비토(非石非土) 형태이었으며 아주 단단하고 입자가 치밀하였다. 또한 수맥(水脈)을 측정한 결과 전혀 수맥이 없는 안정된 지반이었다. 이러한 토질과 안정된 지반 때문에 오상리 고인돌은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본다.

3) 사신사

현무에서 용맥이 뺏어내려 오고 있지만 단독으로 내려오고 있어 청룡과 백호를 찾아보기 힘든 국면이었다. 고려산 뒷면을 바라보고 있어 바위가 많이 노출된 면을 보게 된다.

4) 물과 바람

용맥의 양 옆은 골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으로 보인다. 청룡과 백호가 없고 멀리 서해가 바라보는 방위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 자리에 입지하고 있다.

6. 내가면 고천리(內可面 古川里) 고인돌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는 고려산 남쪽에 위치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고려지(高麗池)로 흘러들어가는 연천이 발원하고 있다. 고려산(436m)의 남쪽 경사면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 강화도 고인돌의 대부분은 고려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천리 고인돌은 고려산 서쪽 봉우리인 낙조봉과 적석사 사이 남쪽 경사면 해발 350m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모두 20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다.



(그림 5-11) 고천리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46호)

1) 산과 용

고천리 고인돌은 고려산 정상에서 서쪽 낙조봉으로 가는 능선에서 남쪽으로 뺀어 내린 용맥상에 입지하고 있다. (사진 5-10)은 69번 고인돌로

용맥이 급한 경사를 타고 내려오다가 일시적으로 평탄해지는 지형에 입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3기의 고인돌(68~70번)이 입지하고 있으며 70번 고인돌 아래로는 절벽과 같은 급한 경사를 보여 이 용(龍)이 지룡(支龍)이 아니라 지각(枝脚)⁸⁰⁾이라고 볼 수 있고, 산의 뒷면에 해당되는 곳이다.

2) 혈

고천리 고인돌군은 산의 정상에 가까운 높은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기처인 혈을 맺기 어려운 곳에 입지하였다. 산의 뒷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층이 불안정한 구조이며, 수맥이 주로 축정되었다. 대부분의 고인돌은 무너진 상태이었으나 69번 고인돌만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지반위에 고인돌이 입지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69번 고인돌이 놓인 지반은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단단한 토질위에 축조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림 5-11)에서 보듯이 고인돌의 바위가 시커멓게 변하여 이곳이 훌륭한 명당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3기의 고인돌들은 모두 용맥의 방향에 따라 무덤방이 자좌오향(子坐午向) 방위로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고천리 고인돌의 무덤방 방위는 자좌오향(子坐午向)이다. 용맥의 방향에 따라 배산임수 형태의 규칙대로 입지하고 있다고 보겠다.

3) 사신사

능선에서 좌우로 다른 용맥이 같이 뻗어내려 오고 있어 청룡과 백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청룡이 혈장을 감싸는 듯하다가 다시 아래로 진행하였고 청룡에 비해 백호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었다. 앞에는 멀리 혈구산(488m)이 장엄하게 솟아 있어 안산(案山)의 역할을 하였지만 안산이 고려산 정상보다도 높아서 지나치게 큰 형태라고 하겠다.

80) 지각(枝脚)은 주룡에서 분벽한 지룡맥(支龍脈)이 3절(節)이내에서 끝날 때 지각(枝脚)이라 말한다.

4) 물과 바람

용맥의 양 옆은 골이 있고 70번 고인돌 남동쪽으로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따라서 높은 곳이지만 수기(水氣)가 부족한 곳은 아니었다. 다만 골이 산 아래로 막힘없이 내려가고 있어 산수동거(山水同去)로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는 형태이었다. 바람은 산의 정상부근임에도 불구하고 69번 고인돌 자리에서는 잔잔한 편이었으며 청룡과 백호가 바람막이 기능 정도는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5)기타

고천리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덮개돌을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 채석장이 확인되었다. 산 정상 부근까지 무거운 덮개돌을 운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대신에 산의 정상부근에는 덮개돌로 사용할만한 암석을 찾기 쉬웠을 것이다. 고천리 고인돌은 높아서 주변을 내려다보며, 채석하기 쉬운 곳에 세워졌다고 본다.



(그림 5-12) 고천리 고인돌 채석장

7. 현장조사결과 종합

강화도 고인돌의 전체적인 입지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조사의 결과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분	부근리 강화지석묘	부근리 점골고인돌	삼거리 샘말고인돌	교산리 산상고인돌	오상리 고인돌	고천리 고인돌
산의 면	앞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용	내용맥 끝부분	내용맥 끝부분	내용맥 중간부분	내용맥 중간부분	내용맥 과맥처	내용맥 끝부분
혈의 모습	유혈 비석비토	유혈 비석비토	중간취기처 비석비토	중간취기처 비석비토	중간취기처 비석비토	지각(枝脚) 수맥통과
무덤방 방위	용맥과 일치	용맥과 일치	용맥과 일치	용맥과 45° 차이	용맥과 일치	용맥과 일치
사신사	백호, 안산 있으나 청룡이 없음	백호는 있으나 청룡과 안산이 없음	청룡과 백호는 있으나 안산이 없음	청룡과 백호, 안산이 없음	청룡과 백호, 안산이 없음	청룡 백호, 안산은 있으나 불균형
수세	물을 역수하는 청룡이 없음	산수동거 (山水同去)	산수동거 (山水同去)	산수동거 (山水同去)	용맥의 좌우 건천	산수동거 (山水同去)
바람	청룡이 없어 바람이 심함	안산이 없어 북풍이 심함	청룡과 백호 장풍역할	사신사 없어 바람이 심함	사신사 없어 바람이 심함	청룡과 백호 장풍역할

(표 5-4) 풍수지리 입장에서 본 고인돌 입지 분석

현장조사 결과 고인돌의 입지가 풍수지리 이론상 명당의 조건과 일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고인돌의 대부분이 산의 앞면에 위치하고 있다.
- 용맥이 내려오는 방향에 맞추어 용맥 중간에 위치하였다.
- 용맥의 끝부분 아니면 용맥 중간에 평평한 부분에 자리하였다.
- 토질은 바위와 흙의 중간 성분인 비석비토(非石非土)로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나타낸다.

다른 면으로 고인돌의 입지가 풍수지리 이론상 명당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고인돌 주변에 사신사 기능을 하는 사(砂)가 거의 없다.
- 물을 역수하는 기능을 하는 사(砂)가 거의 없어서 산수동거(山水同去) 형태가 많다.
- 바람을 막아주는 사신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풍(藏風)이 안되고 바람이 심하다.

종합적으로는 고인돌을 축조한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지형조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인돌을 세웠지만 바람과 물을 다스리는 데는 다소 미흡한 면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풍수지리에서 장풍(藏風)과 득수(得水)라는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땅의 이치(地理)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인돌이 축조되었다고 생각한다.

제6장 결 론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풍수지리 이론은 이러한 자연숭배사상에서 출발하여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조건을 지닌 터를 찾는 학문이다. 좋은 터를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산세와 강물 등의 조건을 살피게 된다. 산과 물의 지세(地勢)를 분석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자리인 명당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풍수의 핵심이다.

명당이란 사람의 건강과 발전에 필요한 기운(생기, 에너지)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명당은 크게 땅(산 포함), 강(물), 바람 등 세 가지 자연조건의 조화와 안정과 균형에서 이루어진다.

명당은 좋은 산(名山)에서 찾기가 쉬운데 산의 앞면 낮은 곳에 위치한다. 좋은 기운이 모이기 위해서는 산의 능선(龍脈)이 이어져서 산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며, 에너지의 통로는 능선의 중앙으로 불록 솟아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주변보다 두둑하게 솟아 있는 곳이 명당이다.

혈은 자연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땅의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비석비토(非石非土)의 토질이다.

명당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환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데, 대표적인 것이 사신사(四神砂)이다. 사신사는 바람막이, 반사경, 볼록렌즈 기능을 하여 혈과 명당을 만든다.

명당을 만드는데 물과 바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지만 지나치게 많거나(太過), 지나치게 부족하면(不及) 해가 된다. 또한 수맥은 수직적으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명당은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잔잔한 바람이 부는 곳이다.

청동기시대 묘지인 고인들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세워졌다. 동북아의 고인들은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산맥이나 강의 흐름 등과 관련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 지형에 대한 이해와 자연숭배사상(自然崇拜思想)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북아 고인들의 입지조건은 산마루·산기슭·구릉지·고개마루·분지성 평지·해안가 주변, 또는 소하천변의 충적토위에 형성된 평지 등이다. 요녕지방과 같이 북부지역은 높지 않은 산마루·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산과 평지가 만나는 명당(明堂)지역에 주로 축조되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주변 자연 지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자리하였다는 점인데, 능선의 방향과 능선의 중심에 맞추어 고인들이 위치하였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맥(龍脈) 상에 고인들이 축조되었음을 나타낸다.

강화도 고인들이 축조되는 입지조건을 산마루·산능선·산하사면(山下斜面)·평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하사면(山下斜面)은 산의 능선이 뺏어 내려와 평지와 만나기전 두둑한 부분으로 풍수지리에서 명당권이라 부르는 지역이다. 강화도 고인들의 입지조건을 지세(地勢)에 따라 살펴보면 산하사면에 입지한 고인들이 모두 101기로 전체 165기의 61.21%에 달한다. 강화도에 있는 고인들의 절반 이상이 명당권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인들이 산의 앞면에 입지하고 있다.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서 움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기운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농경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에 유리한 곳을 주거지로 삼았고, 부근에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은 조상들이 경험한 대자연의 이치를 최대한 이용하여 더 좋은 조건을 지닌 터를 찾아서 주거지를 삼았고,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신 조상의 사후 거주지를 선택하였음을 말한다.

강화도 하점면 부근리와 삼거리, 양사면 교산리, 내가면 오상리와 고천리에 위치한 고인돌군의 입지조건을 풍수지리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는 훌륭한 명당에 이들 고인돌이 입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풍수지리 이론에서 말하는 사신사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물이 그냥 빠져나가고 바람이

강한 자리에 입지하였다.

하지만 고인들의 위치는 산의 앞면에 주로 자리하였고, 거의 예외 없이 용맥의 방향에 맞추어 중앙에 입지하고 있었다. 축조한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고인들이 입지한 토양은 비석비토 형태로 아주 단단하고 치밀한 토질이었다. 또한 수맥이 없을수록 보존상태가 양호하였다.

덧개돌의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곳까지 이동시켜 고인들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자연숭배사상과 조상을 존중하는 사상이 아주 깊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원류(源流)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학위논문

- 강동석, 「강화 북부지역 지식묘사회의 취락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논문, 2002.
- 우장문,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 유태용, 「한국 청동기 시대 지식묘 사회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2.
- 이상길,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00.
- 하문식, 「우리나라 고인돌문화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홍인국, 「강화 북부지역 추장사회의 실체」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2. 학술지

- 김교경 「단군릉에서 나온 사람 뼈에 대한 년대 측정 결과」, 살림터,
1995
- 김병모 「한국 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1)」, 한국고고학보, 1981
- 김석훈 「강화도의 선사문화」, 博物館誌, 2000
- 도유호 「조선거석문화연구」, 문화유산 59-2, 1959
- 석광준 「우리나라 서북지방 고인돌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7,
1979
- 손진태 「조선 돌멘에 관한 조사연구」, 조선민족문화연구, 1948
- 이상균 「고창지석묘군 상석 채굴지의 제문제」, 한국상고사학보, 32, 2000
- 지건길 「支石墓社會의 復元에 관한 一研究」, 梨花史學研究13·14집,
1980
- 최성락 「支石墓 復元의 一例」, 全南文化財, 1989
- 한용걸 「고인돌무덤 건축에 사역된 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단군과 고조
선연구, 살림터, 1995

황기덕 「무덤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사회관계」, 고고민속,
1965
현진상 「우리땅 산줄기 백두대간」, 2002

3. 서적

김기선 『풍수지리학개론』, 형설출판사, 2000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98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박시익 『풍수지리로 본 서양 건축과 음악』 도서출판 일빛, 2006
변광현 『고인돌과 거석문화-동아시아』, 도서출판 미리내, 2000
석광준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도서출판 중심, 2002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05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처럼, 2004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사
유태용 『한국 지식묘 연구』, 주류성, 2003
이익중 『길한터 흉한터』, 우성출판사, 2001
이익중 『터와 명당』, 우성출판사, 1998
이형구 『한국고대문화의 기원』, 도서출판 까치, 1991
이형구 『江華島 고인돌무덤 調査研究』, 춘추각, 2006
장용득 『명당론(明堂論)』, 양정사, 1980
정수일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출판사, 2001
최길성 『조선의풍수』 (村山智順), 민음사
최몽룡 『한국 지식묘 연구 이론과 방법』, 주류성
한규성 『易學原理講話』, 예문지, 1957

4. 기타

강화고인돌문화축제 <http://www.ghgoindol.com/>

고인돌사랑회 <http://igoindol.net/>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박시익교수의 풍수지리와 건축 <http://www.feng-shui.pe.kr/>

변광현(邊光賢) 원시예술 홈페이지 <http://myhome.shinbiro.com/~kbyon>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홈페이지

http://home.megapass.co.kr/~kdjsmart/_home.htm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체험학습관 <http://www.dolmen.or.kr/>

한국고고학회 <http://www.kras.or.kr/>

ABSTRACT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Location of Dolmen from the View point of Feng Shui

- With emphasis on the region of Kang-hwa-do -

Lee, Seung-Hee

Major in Feng Shui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Korea, people have always cherished and respected nature. Feng Shui originated from this love of nature, studies and seeks for beneficial locations of buildings for human. Actually, locating "Myoung-dang," a flourishing or propitious site, is the core of Feng Shui principles.

Dolmen, Northeast Asian tombs of the Bronze Age, was built by certain rule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landform and respect for nature. Especially, land forms of regional mountains and rivers had much to do with the entombment of Dolmen with regard to its location.

In terms of conditions of location, Dolmens of Northeast Asia in northern regions including LiaoNing in China, are located low on the ridges of mountains and in southern regions mostly on Myoung-dang areas where mountains and land meet. However, whether in the north or the south, they are commonly located in close relationship with natural surroundings and centered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ridges. This fact proves that Dolmen was built in "Yong-maek (or Dragon Stream)," as it is known in Feng Shui.

More than half of the Dolmens in Gang-hwa-do are found in the region of Myoung-dang, mostly on the front of mountains. Almost without exception, they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ridges in line with the "Yong-maek" direction. Considering the huge number of people put into use for conveying gigantic table stones for building Dolmen, it is evident that people were very respectful of nature and ancestors. I have decided that this belief of people led us to the studies of Feng Shui.